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 소설 시점에 따른 한국어 문법 현상 연구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정 아

<국문초록>


# 소설 시점에 따른 한국어 문법 현상 연구

김 정 아

이 연구의 목적은 소설 시점에 따라 한국어 문법 요소들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다양한 한국어 문법 요소 중 인식양태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하여 시점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 그러한 차이가 시점의 어떠한 특징과 연관되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소설의 문학적 요소와 문법 요소가 어떻게 상호관계를 맺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소설 역시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화자가 인식한 내용을 다시 청자에게 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소설의 소통 구조 역시 이야기 세계를 서술자가 인식하고 이를 다시 서술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어 '인지'와 '발화'라고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인지 행위와 발화 행위가 분리될 수 없는 일반적인 의사소통과는 달리 소설의 서사에서는 이 두 행위가 분리될 수 있으며, 인지 행위의 주체를 '초점화자'라고 명명하고 발화의 주체인 '서술자'와 구분한다.

소설의 시점은 발화의 주체인 서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서 직접 자신이 인지한 내용을 전달하는 시점을 참여자 시점이라 하고, 이야기 밖에서 서술하는 시점을 비참여자 시점이라고 한다. 참여자 시점의 서술자가 구체적인 인격을 가진 소설 속 인물로 등장하는 반면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특정할 수 없는 존재로 감정 등을 드러내지 않고 서술만을 하는 존재이다.

3장에서는 인지의 과정과 관련된 문법 요소인 인식양태의 출현과 특징을 살폈다. 인식 양태는 어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문법 범주로 감정이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비참여자 시점의 서술자보다는 구체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참여자

시점의 서술자에게서 더 자주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두 시점이 비슷한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술자의 문제가 아닌 초점화자의 문제로, 소설 작품 내에서 초점화자의 변조가 일어나 비참여자 시점임에도 참여자 시점처럼 소설 속 인물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인식양태는 '인지'와 관련된 문법 범주로 '인지'의 주체인 초점화자의 변화에 따라 두 시점 모두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4장에서는 발화의 과정과 관련된 문법 요소인 종결어미의 출현과 특징을 살폈다. 종결 어미에서는 두 시점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종결어미는 문장의 유형과 상대높임법을 나타내는 범주로 발화의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초점화자가 소설 내에서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시점은 보통 한 서술자로 고정된다. 서술자가 소설 속 등장인물인 참여자 시점에서는 서술자의 신분 및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서술자가 구체적인 인물로 특정되지 않는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자신의 위치를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높임법의 등급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의문이나 명령 등의 화행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유형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종류의 종결어미가 등장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인식양태와 종결어미라는 문법적 요소들이 각 시점의 특징과 초점화자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텍스트 내에 등장한다는 것을 밝혔다.

주요어: 시점, 초점화, 인식양태, 종결어미, 초점화자, 참여자 시점, 비참여자 시점, 내적초점화, 자유 직접 화법

학번: 2012-20004

# 목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대상 2
1.3. 연구 방법 4
1.4. 논의의 구성 4

2. 기본적 논의 6
2.1. 소설 시점의 개념 및 분류 6
2.1.1. 소설 시점의 개념 6
2.1.2. 시점과 초점화 9
2.1.3. 시점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 12
2.2. 소설 시점과 인지·발화 과정 16
2.2.1. 인지와 발화의 과정과 문법범주 16
2.2.2. 소설 시점에 따른 발화와 인지의 과정 18

3. 소설의 시점과 인식양태의 상관관계 21
3.1. 소설 시점별 인식양태 출현의 계량적 연구 21
3.1.1. 자료의 처리 및 결과 21
3.1.2. 결과에서 나타나는 예외의 원인 분석 26
3.1.3. 비참여자 시점의 예외 분석 32
3.1.4. 참여자 시점의 분포 분석 40

3.2. 소설 시점별 인식양태 출현의 질적 연구 43
3.2.1 자료의 선정 및 분석 방법 43
3.2.2. 참여자 시점 소설의 질적 연구 44
3.2.3. 비참여자 시점 소설의 질적 연구 48
3.3. 시점에 따른 인식양태 부사 50
3.3.1. 소설 시점에 따른 인식양태 부사의 출현 빈도 50
3.3.2. 개별 인식양태 부사의 분석 51
3.4. 요약 56

4. 소설의 시점과 종결어미의 상관관계 57
4.1. 소설 시점별 종결어미의 계량적 연구 57
4.1.1. 소설 시점별 종결어미의 출현 빈도 결과 57
4.1.2. 소설 시점과 종결어미의 상관관계 62
4.2. 소설 시점별 종결어미의 질적 연구 66
4.2.1 자료의 선정 및 분석 방법 66
4.2.2. 참여자 시점 소설의 분석 67
4.2.3. 비참여자 시점 소설의 분석 69
4.3. 요약 71

5. 결론 72

참고문헌 74

# 1. 서론

## 1.1. 연구목적

언어를 사용한 예술의 하나인 소설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소설 속 이야기는 서술자라는 화자를 통해 청자라고 할 수 있는 독자에게로 전달된다. 소설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을 다양한 종류의 방식으로 나누어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시점이다.

시점이란 소설에서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서술하느냐와 관련된 개념이다. 서술자는 소설 내 인물일 수도 있고, 소설 밖의 전지적 존재일 수도 있다. 작가는 다양한 변주의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의 선택은 크게는 서사구조에서 작게는 소설에 나타나는 문장들의 통사구조나 어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이야기라도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소설 시점에 따라 어떠한 문법적 요소들이 차이를 두고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이다. 한국어에서 이미 어떠한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문법 범주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뿐만이 아니라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현될 것이다. 다만 문맥이나 상황이라는 환경 대신 시점이라는 환경의 차이를 중심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문법 요소들이 시점이라는 환경 하에서 다른 실현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대표적으로 인식양태와 종결어미라는 두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시점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인식양태는 명제 중에서 특히 정보를 전달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범주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인식양태 요소들은 어미 '-겠-' 및 우언적 구성 '-ㄹ 것이-', '-ㄴ/ㄹ 모양이-', '-ㄴ/ㄹ 것 같-', '-ㄴ/ㄹ 듯싶-', '-ㄴ/

ㄹ 듯하-', '-ㄴ/ㄹ 법하-', '-ㄹ 수도 있-', 그리고 '아마', '어쩌면', '분명', '정말' 등과 같은 부사 등이 있다. 이러한 인식양태 요소들의 출현 빈도와 출현하는 텍스트적인 환경을 관찰하고자 하며, 이를 좀 더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소설 텍스트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시점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종결어미는 문장에 끝에 나타나며 상대높임법과 문장종결법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상대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대를 대우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며 문장종결법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 문장의 유형과 관련되어 있다. 종결어미에 의해 표시되는 두 가지 문법 범주 모두 상대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후의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째, 이 글에서 다루는 한국어의 문법 요소들, 즉 인식양태와 종결어미가 실제 문학 텍스트에서 나타날 때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각 문법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시점이라는 문학의 개념과 인식양태와 종결어미라는 문법 범주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 어학적 측면의 문체론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한국 현대 소설 말뭉치를 기반으로 하여 그 안에서 검색을 통해 연구 대상인 문법 범주들의 빈도를 비교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 현대 소설로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소설 텍스트는 한국 현대 소설의 한하며, 그 중에서도 될 수 있으면 90년대 이후의 소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되도록이면 현대 한국어의 사용을 반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소설과 같이 특수한 문체를 사용하는 소설이나 방언을 주된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제외하였으며, 현대 표준어를 중심으로 하는 소설을 대상으로 목록을 구성하였다. 조사를 위해 구축한 말뭉치에는 21세기 세종계획 최종성과

물과 개인적으로 직접 구축한 말뭉치를 모두 활용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삼은 소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1]

<표1 조사 대상 소설 목록>

| | | |
|---|---|---|
| 참여자 | 김연수 –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br>윤대녕 – 은어낚시통신<br>김원두 – 어느 개의 인간적인 추억(2BEXXX20)<br>김종광 – 경찰서여 안녕(4BE00003)<br>구효서 – 낯선 여름(BREO0339) | 총 12641문장[2] |
| 비참여자 | 유기성 – 아름다운 그 시작(2BEXXX22)<br>유재용 – 아버지의 강(4BE86003)<br>구인환 – 어떤 서울 사람(BRBF0269)<br>오정은 – 펭귄의 날개(BREO0303)<br>김승희 – 아마도<br>이문열 – 변경 1권<br>최성각 –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br>편혜영 – 토끼의 묘 | 총 11497문장 |

이상의 말뭉치에서 대화 부분("" 표시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한정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다시 가공하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소설의 시점이 대화 부분이 아닌 서술 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 말뭉치에서 탐색할 문법 범주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인식양태와 종결어미이다. 먼저 연구 대상인 인식양태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소설 목록 중 '2BEXXX20'와 같이 괄호 안에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들어있는 경우는 세종말뭉치에 해당 파일이 있을 경우 파일명을 병기한 것이다. 파일명이 없는 경우는 직접 구축한 말뭉치의 경우에 해당된다.

2) 문장의 수를 말뭉치 크기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앞으로 다룰 인식양태나 종결어미가 문장 혹은 명제 단위로 적용되는 문법 범주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어절 단위의 말뭉치 크기보다는 문장의 수를 밝히는 것이 좀 더 정밀한 연구가 될 수 있다 판단하여 문장 수를 제시하였다.

(1) 가. 선어말어미 목록: '-겠-'
나. 우언적 구성 목록: '-ㄹ 것이-', '-ㄴ/ㄹ 모양이-', '-ㄴ/ㄹ 것 같-', '-ㄴ/ㄹ 듯싶-', '-ㄴ/ㄹ 듯하-', '-ㄹ 수도 있-'
다. 어휘적 인식양태(양태부사): 정말, 어쩌면, 아마, 아마도, 분명, 분명히, 사실

종결어미의 경우, 목록을 정하지 않고 텍스트 내에서 검색되는 모든 사례들의 빈도를 조사하였다. 이 때 연결어미라도 종결어미의 위치에서 종결어미와 비슷한 역할로 사용되었다면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전성어미와 조사 등은 제외하였다. 단 조사 '요'의 경우는 포함시켰다.

## 1.3. 연구 방법

이 글의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계량적 연구 방법으로, 말뭉치를 검색하여 얻은 빈도 측정 결과를 중심으로 각 요소들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 및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여 시점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계량적 연구는 각 각 문법 요소가 시점 별로 어떻게 또 얼마나 선택되는지에 대한 거시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각 요소들이 어떤 문맥 하에서 선택되는지 그 분포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상 측정은 할 수 있으나 그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미흡할 수 있다.

계량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질적인 연구 역시 병행하여 수행할 것이다. 질적인 연구로 실제 소설 텍스트 내에서 실제로 문법 요소들이 어떠한 문맥과 시점 아래에서 나타나는지를 살펴 계량적 연구의 빈 자리를 채우고자 하였다. 질적인 연구는 각 시점의 전형적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 1.4. 논의의 구성

이 글의 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연구 대상과 방법에 대해 논하였다. 이어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 배경이 되는 기본적 논의를 소설 시점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후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3장에서는 소설 시점과 인식양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데 크게 어미와 우언적 구성의 문법적 인식양태와 부사인 어휘적 인식양태로 나누어 볼 것이다. 이어 4장에서는 소설 시점과 종결어미의 상관관계를 각각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고 남은 과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 2. 기본적 논의

## 2.1. 소설 시점의 개념 및 분류

### 2.1.1. 소설 시점의 개념

소설이란 한 편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소설을 단순히 작가가 허구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장르로 이해한다면 그 내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어떤 이야기든 이야기는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이야기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하는 화자와 그 이야기를 듣는 독자가 필요하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청자는 독자이고, 화자는 소설가이며, 이야기는 소설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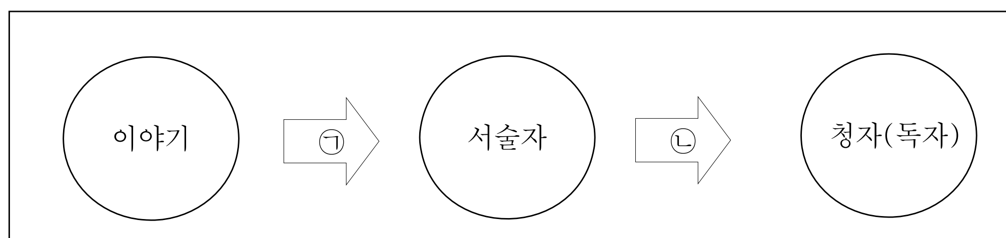
예를 들어 어린 소녀의 눈으로 어머니와 사랑방 손님의 미묘한 감정을 그려내는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같은 경우, 명시적인 화자는 작가가 아니라 어린 딸이다. 화자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청자 역시 불특정 독자가 아닌 특정 청자를 고정하는 경우가 있다.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는 소설인 황석영의 <아우를 위하여> 같은 경우 군대에 간 아우를 명시적인 독자로 세우고 쓴 소설이다. 이처럼 소설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서술자와 청자가 작가와 독자가 아닌 다른 존재로 상정될 수 있으며, 그만큼 소설은 다양한 소통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소통구조와 관련된 개념이 바로 소설의 시점이다.

시점이란 소설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 즉 서술자가 누구이며 어느 위치에 있느냐와 관련된 범주이다. 시점이라고 하여 마치 서술자라는 가상의 개인 혹은 작가가 갖는 태도나 관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점을 좁은 개념으로 파악한 것이다. 더 넓은 의미에서, 또 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찰 대상이 되는 개념으로서 시점은 그보다는 서술자의 위치 및 거리를 가리키는 용어라고 생각함이 옳다.

주의할 것은, 서술자의 위치가 단순히 1차원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

니라는 것이다. 서술자는 소설의 이야기와 청자 사이에 위치하는 매개체이다. 그런 만큼 서술자의 위치는 크게 ㉠이야기와 서술자 사이의 거리 및 위치, ㉡서술자와 청자(독자)간의 거리 및 위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의 관계는 보는 행위와 관련이 있으며 ㉡은 말하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 즉 시점이란 보는 행위와 말하는 행위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범주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도표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1 소설의 소통구조>




이처럼 소설 시점이란 서술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설 시점에 대한 연구는 서술자의 위치를 변별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요소를 선별하고, 그 기준에 따라 시점을 분류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개별 작품마다 서술자의 위치는 조금씩 다르고 개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범주화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Urzell(1934)는 이러한 시점 분류 연구의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부터 3인칭 객관적 시점, 1인칭 주인물 시점, 3인칭 주인물 시점, 1인칭 주변인물 시점, 3인칭 주변인물 시점 등 총 6가지 시점을 분류하였다.[3] 이후에 많은 서사 이론가들이 시점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분류는 Brooks · Werren(1943)의 것이다.

Brooks · Werren(1943)은 Urzell(1934)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우리가

3) Urzell, T., (1934), Narrative Technique: 김천혜(1990) 『소설 구조의 이론』, 100p에서 재인용

현재 잘 알고 있는 네 가지 시점 분류를 완성하였다. 이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Brooks · Werren(1943)의 시점 구분>[4)]

| | 내부로부터 분석된 사건들 | 외부로부터 분석된 사건들 |
|---|---|---|
| 세계 내부 |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 (1인칭 주인공 시점) | 타인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 |
| 세계 외부 | 전지적 작가가 이야기를 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 | 작가가 외부에서 이야기를 한다. (3인칭 관찰자 시점) |

이 네 가지 시점은 서술자가 소설 내부에 허구적 인물로 존재하는가 여부와 서술자가 외부와 내부 중 어디에 위치하여 관찰하는가라는 기준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가 세계 내부에 있으며 주인공이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내부로부터 사건을 분석하여 이야기한다. 1인칭 관찰자 시점 역시 서술자가 이야기 세계 내부에 있지만 자신이 아닌 타인(주인공)의 상황을 외부에서 관찰해 기술한다. 반면 서술자가 세계 외부에 있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에서 전지적인 능력을 가진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까지 분석해 서술한다면 전지적 작가 시점, 세계 외부에 있는 서술자가 단지 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만을 외부에서 관찰해 서술한다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2) 예문은 각 시점에서 가능한 서술을 개략적으로 보인 것이다.

(2) 가. 1인칭 주인공 시점: 나는 영희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 1인칭 관찰자 시점: 그녀는 나에게 영희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다. 전지적 작가 시점: 그녀는 영희가 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라. 3인칭 관찰자 시점: 그녀는 친구에게 영희가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실제 소설 내에서의 의사소통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고

4) 박재섭(1995: 9)에 제시된 표를 수정, 보완함

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50년대 이후 신비평·구조주의의 흐름을 타고 소통 구조를 고려한 시점 유형론 연구가 활발해진다. 그 중 대표적인 이론가로 Booth(1961)는 소설 내에 작가의 대리인인 내포 작가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기존의 의사소통 구조보다 더 세밀한 서사 구조를 포착해냈다. Genette(1972)[5]는 시점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비판하며 대신 초점화(focaliza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서술 행위와 지각 행위를 분리하여 포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초점화 개념은 이어지는 서사 구조 및 시점 연구에 있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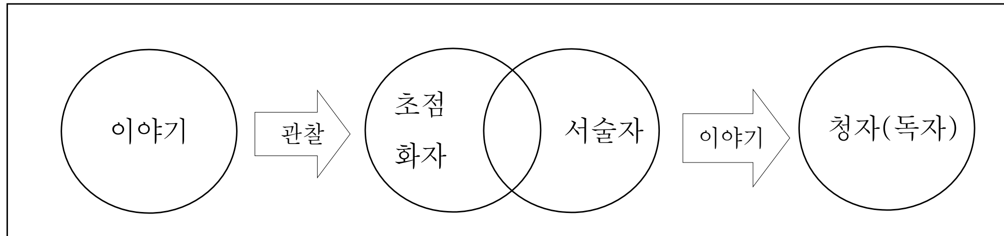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Genette(1972)의 초점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앞으로의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상술한 초점화 개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소설 시점과 의사소통 구조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

### 2.1.2. 시점과 초점화

초점화(focalization)란 Genette(1972)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그동안의 시점 연구와 달리 누가 바라보는가의 행위와 누가 말하는가의 행위를 구분한 것이다. Genette(1972)는 이것을 그의 용어로 각각 '서술법(mood)'과 '음성(Voice)'을 분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Genette (1972)는 지각 행위와 서술 행위를 분리하여 개념화하였다. 즉, 실제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존재는 서술자, 이야기를 지각하는 존재를 초점화자, 그리고 보여지는 대상이 바로 초점화 대상이다. 초점화는 앞서 말한 '서술법(mood)'와 '음성(Voice)' 중 서술법에 해당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5) Genette(1972)는 권택영 역, 『서사담론』, (문예출판사, 1992)를 참고하였으며 이 논문에서 논의하는 Genette와 초점화와 관련된 모든 용어는 번역본의 용어를 기준으로 하였다.

<도표2 초점화자와 서술자>




이러한 초점화 개념을 통해 새롭게 고찰할 수 있는 내용은 소설에서 관찰하는 인물과 서술하는 인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도표2>에서 볼 수 있듯, 실제 사건을 인지하는 초점화자와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동일인물로 겹쳐질 수도 있으며, 다른 인물로 분리될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그 예를 볼 수 있다.

> (3) 남편이 아이를 낳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후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자리를 부대끼게 만들었다. (중략)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일을 상상하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한 것인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다. (중략)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우울증에 빠진 여동생을 런던까지 불러들인 건 세희였지만, 낮이면 차양을 드리워 칠흑처럼 어두운 3층 다락방에 누워 좀체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녀를 데리고 내셔널 갤러리나 코벤트 가든 따위의 관광지로 데려가는 일은 **내** 몫이었다.(김연수,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6]

(3)의 후반부에 일인칭 대명사 ‘내’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소설에서 서술자는 '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며, Brooks · Werren(1943)의 분류에 따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를 낳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후로도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자리를 부대끼게 만들었다.’나 ‘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실제

6) 예문의 굵은 글씨와 밑줄 모두 논문 저자가 표시한 것이다.

로 묘사된 내용을 지각한 주체는 초점화자인 '그녀'이다. 이 문장들에서 서술의 관점을 이끌어나가는 인물은 '그녀'로, 실제 서술자인 '나'는 어떠한 서술의 관점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서술자는 초점화자인 '그녀'가 지각한 바를 그저 대신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Genette(1972)는 초점화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누었다. 그것은 제로(zero) 초점화, 내적 초점화, 외적 초점화이다. 제로 초점화는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유형의 초점화이다. 내적 초점화는 서술 시점이 작중 인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외적 초점화는 사건이 외부의 관찰자에 의해 관찰되며 작중인물의 내적인 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텍스트 단위가 아닌 아주 작은 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점화가 한 텍스트 내에서 일관되게 한 인물에게만 고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초점화자와 서술자가 분리될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다시 초점화자와 서술자가 일치할 수도 있다. (3)에서도 '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우울증에 빠진 여동생을 런던까지 불러들인 건 세희였지만, 낮이면 차양을 드리워 칠흑처럼 어두운 3층 다락방에 누워 좀체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녀를 데리고 내셔널 갤러리나 코벤트 가든 따위의 관광지로 데려가는 일은 <u>내</u> 몫이었다.'와 같은 문장은 초점화자와 서술자가 모두 '나'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초점화자와 서술자의 분리 현상은 앞서 살펴본 (3)의 예와 같이 1인칭의 소설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3인칭의 소설에서도 발견된다.

(4) 토끼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힐끔 풀숲 쪽을 돌아보니 흰 털뭉치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털이 흰 개라고 생각한 그것은 빨간 눈을 빤히 뜨고 <u>그</u>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아니었다면 토끼인 줄 몰랐을 거였다.(편혜영, 「토끼의 묘」)

(4)는 '그'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전형적인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이다. 하지만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힐끔 풀숲 쪽을 돌아보니 흰 털뭉치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실제로 풀숲 쪽을 돌아보고 흰 털뭉치 같은

것을 본 주체는 서술자가 아닌 등장인물인 ‘그’이다. (4)의 예문에서 서술가가 전지적인 화자라면, 초점화자는 ‘그’가 된다.

이상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실제 텍스트 안에서 ‘지각하는 존재’와 ‘서술하는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점의 이동 및 분리에 대해 Brooks · Werren(1943)의 규범적인 시점 분류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초점화는 단순히 이전의 시점 유형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화자의 음성의 변이에 대해 설명해주고,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와 지각을 하는 초점화자를 분리시켜 시점이란 단층적인 구조가 아닌 다층적인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 2.1.3. 시점의 분류와 유형별 특징

이 절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소설 텍스트들을 시점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각 시점별로 어떠한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글에서 어떻게 시점을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앞서 초점화에 대해 논하면서 Brooks · Werren(1943)과 같은 규범적인 분류가 소설의 서사 구조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았다. 또한 초점화가 전체 텍스트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개념도 아님을 확인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점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노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초점화가 전체 텍스트가 아닌 좀 더 작은 단위에 적용되며 전체 작품에 일관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경향성마저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초점화자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 Genette(1972)에서도 변조(Altera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텍스트 내에서의 초점화자의 변화를 부분적 배반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를 반증한다.

앞서 우리는 대표적인 시점 유형 분류 방법과 초점화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학자마다 다양한 시점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앞서 Genette(1972)의 초점화 이론을 받아들였듯, ‘음성(Voice)’의 분류 방법도 함께 받아들이기로 한다. Genette(1972)는 서술자의 구분에 있어 기존

의 '1인칭, 3인칭'과 같은 인칭에 의한 구분을 비판하며 그보다는 서술자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스토리 속에 존재하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다.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서 서술하는 경우를 '동종 이야기(homodiegetic)',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서술한다면 '이종 이야기(heterodiegetic)'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그러한 시점 구분 방법의 기준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명칭은 수정하여 동종 이야기를 '참여자 시점'으로, 이종 이야기를 '비참여자 시점'으로 바꾸기로 한다. 이는 서술자가 이야기 속에 참여하여 서술하느냐 여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직관적인 용어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의 예는 다음과 같다.

(5) 가. 내가 태어나던 1964년 7월 12일에 아버지는 울진 왕피천에서 은어낚시를 하고 있었다. 여름이 되면 그는 왕피천과 호산 기곡천, 그리고 양양에 있는 남대천으로 계류낚시를 즐기러 가곤 했다. 그리하여 그날 7월의 무더위 속에서 어머니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혼자서 나를 낳았던 것이다. 그날따라 조황이 좋았던지 아버지는 바구니 가득 은어를 채우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강보에 싸인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윤대녕, 「은어낚시통신」)

나. 그는 작년에 새로 이사 온 마들평 인근에 산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마음에 들었다. (중략) 그가 태어나서 자란 작은 소도시는 바다에서 직선거리로 한 십 리쯤 떨어져 있었다. 고향에 있을 때 그는 바다에 나가면 바다의 면전에서 오래 오래 바다를 바라다보곤 했다.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바다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잘 말이 되지 않았다. (최성각,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

(5가)가 참여자 시점의 예이며, (5나)가 비참여자 시점의 예이다. (5가)에서 서술자 '나'는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여 독자들에게 소설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주인공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이 이야기 안 인물인 경우 참여자 시점에 해당한다. (5나)의 경우는 비참여자 시점의 예이다. 서술자는 구체적인 인물로 이야기 안에 존재하지 않고 이야기 밖에서 서술한다. 역시 서술자와 이야기 간의 관계가 전지적이어서 등장인물들이 알

수 없는 정보까지도 서술하는지 여부는 구분하지 않는다.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소설 속 이야기를 서술하며 이야기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다.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 시점을 단 둘로 나누는 이러한 유형 분류는 기존의 많은 시점 분류 체계 중에서도 가장 단순한 체계에 속한다. 이처럼 단순한 시점의 분류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직관적이고 기본이 되는 분류 방식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연구에서 다양한 시점의 유형화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여부는 거의 모든 방법론에서 시점 분류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흔히 말하는 1인칭 / 3인칭의 구분이 바로 서술자의 이야기 내·외부 여부를 지칭하는 구분이며 많은 이론가들이 이러한 인칭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시점을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 방법이 시점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둘째, 소설의 전체 내용을 읽고 나서야 판가름할 수 있는 시점 분류가 아닌 소설 텍스트의 서사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한다. Brooks · Werren(1943)의 방식만 하더라도 1인칭 소설의 서술자가 관찰자냐 주인공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글 전체를 읽고 판단해야 한다. 그러한 검증 방법은 많은 텍스트를 다루는 계량적 연구에는 잘 어울리지 않으며, 오류의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술자의 위치 여부에 따른 시점의 분류는 비교적 간단히 검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은 정보를 서술하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앞서 소설의 시점은 단층적인 차원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이야기를 인식하는 차원과 이야기를 다시 독자에게 전달하는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각 시점의 특징을 서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참여자 시점에 대해 알아보자. 참여자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등장인물로 설정되어,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서술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때문에 서술자가 이야기의 초점화자일 때 그 인식의 한계를 갖는다. 자신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서술할 수가 없는 것이

다.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로서 참여자 시점의 특징은 인격이 있는 존재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참여자 시점의 경우, 그가 주인공이든 관찰자이든 이야기 내에 실존하는 존재로서 인격을 부여받는다. 그러한 인격을 바탕으로 참여자 시점의 서술자는 독자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 등을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실체를 가진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목소리로 독자나 가상의 청자[7]에게 말을 할 수 있다.

반면 비참여자 시점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다. 단순히 이야기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로 상정된다.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모두 묘사할 수 있든 아니면 관찰자적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밖으로 보이는 내용만을 서술하든, 기본적으로 서술자 자체의 인격이나 개성, 실존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인지하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비참여자 시점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또한 모든 정보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다. 새롭게 감각을 통해 느끼는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자면 어떤 의견이나 태도가 드러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초점화를 통하여 등장인물 중 하나로 초점화자가 변경될 경우 특정한 의도나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화자가 소설 밖에 있는 존재이며 인격을 부여받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점도 참여자 시점과는 다르다. 또한 질문이나 감탄과 같은 화행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소설 시점의 개념과 초점화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것은 문학에서 소설의 서사구조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소설 시점과 소설의 서사구조가 언어의 사용 및 의사소통의 과정과 어떠한 연관을 가질 것인지를 살펴보겠다.

---

7)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같은 경우 편지의 형식이 등장하는데, 이 경우 화자는 청자를 독자라고 가정하지 않고 특정한 소설 속 인물(편지의 수신자)로 가정한 셈이 된다. 이 밖에도 소설에서 화자가 특정한 청자를 내세우고 이야기를 하는 형식의 소설은 상당히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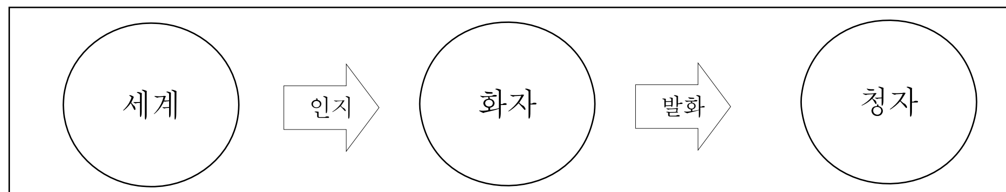
## 2.2. 소설 시점과 인지·발화 과정

### 2.2.1. 인지와 발화의 과정과 문법범주

소설의 시점이 서술자에 의한 독자(청자)와 이야기 사이의 소통 구조로 파악될 수 있음은 앞서 <도표1>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소설의 소통 구조는 실제 언어생활의 의사소통의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크다.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발화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표3 의사소통의 과정>




<도표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소통의 과정은 화자가 자신의 감각 등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를 다시 청자에게 발화하여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문법 요소들과 '발화' 상황에 따라 영향 받는 문법 요소들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발화하게 된다.

이 둘의 차이는 시제와 상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현재 나의 시간적 위치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사건의 시간적 위치에 따라 선택되는 문법 범주인 시제(tense)는 '발화'의 상황에 따른 문법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발화 상황과는 관계없이 내가 사건의 시간구조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해 표현하는 상(相, aspect)의 경우 '인지'의 과정에 따른 문법 범주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다룰 두 가지 문법 범주 중 하나인 인식양태는 대표적인 '인지'의 과정과 관련이 있는 문법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양태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범주이고 인식양태란 화자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태도와 관련된 범주라고 할 수 있다.

인식양태에서 화자의 발화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다. 오직 명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인식양태에는 어미, 우언적 구성, 부사 등의 어휘 등 다양한 실현 방식이 있지만 이들은 모두 '확실성'이나 '개연성', '가능성' 등 인식의 태도를 나타낸다.

반면 종결어미는 발화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화자가 현재 언제, 어디서, 누구와 대화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문법 범주이다. 상대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화행을 수행하려 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종결어미가 한국어에서 하는 주된 역할은 바로 상대높임법 체계의 구분과 문장종결법이라고 불리는 문장 유형의 구분이다. 종결어미는 인식양태와는 달리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인식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 때문에 이는 발화의 과정에서 결정되는 문법 범주라고도 볼 수 있다.

상술했듯이 소설의 소통구조가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과 닮아있다. 이는 소설 역시 가상의 화자인 서술자를 통해 최종적인 청자라고 할 수 있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가상의 의사소통 과정이기 때문이다.

소설이 일종의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대화에서 다양한 화용적인 방책을 사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듯 소설에서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쓰여진 것 이상을 말할 수 있다. 시점 역시 그러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시점의 차이는 단순히 화자가 누구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와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의 차이는 '인지'와 '발화'의 과정에서 선택되는 문법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청자인 독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앞서 시점의 분류에 대해 논하면서 기존에 '1인칭 시점', '3인칭 시점'과 같은 용어가 비판받았음을 이야기하였고, 이 논의에서도 그러한 비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시점의 명칭을 각각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N인칭 시점이라는 용어의 문제점 중 하나는 시점의 개념을 '인칭'의 차이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다. 시점은 서술자의 인칭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술자의 위치가 어디인가와 관련된 개념이며, 이를 언어학적인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면 이야기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시점에서 나타나는 '인지'와 관련된 문법 범주의 실현 빈도 양상과 비참여자 시점에서 나타나는 '인지'와 관련된 문법 범주의 실현 빈도 양상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발화'와 관련된 문법 범주의 실현 빈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독자는 단순히 소설에서 나타나는 인칭의 차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문법 범주의 실현 양상을 보고 소설의 시점을 판단할 것이며, 소설의 시점이 가져오는 여러 서사적인 효과 역시 다양한 문법 요소들을 통해 실현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소설 시점 종류에 따른 문법 범주의 실현 빈도 양상의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2.2.2. 소설 시점에 따른 발화와 인지의 과정

소설 시점과 의사소통 과정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앞서 이미 논한 바 있다. <도표1>과 <도표3>은 상당히 유사한데, 간단히 생각하면 이 둘을 단순히 동일한 선상에 놓고 1:1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표1>의 ㉠은 '인지'가 되고 ㉡은 '발화'라고 볼 수 있으며 '세계'는 '이야기', '서술자'는 '화자', '독자'는 '청자'로 각각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초점화와 초점화자에 대해 논하면서 소설의 소통구조를 <도표2>와 같이 바꾸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즉 하나의 단일체로 보여지는 '서술자'를 실은 초점화자와 서술자라는 두 개의 층위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점화자와 서술자는 일치할 수도 있지만, 앞서 (3), (4) 예문에서 확인했듯이 소설 텍스트 내에서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다.

초점화자의 분리를 고려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를 분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의사소통에서 소설처럼 초점화자와 서술자의 분리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Genette(1972)에서 초점화자와 서술자를 분리할 때 이는 결국 지각 행위와 서술 행위를 분리한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인지'와 '발화'를 분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소설 내에서는 실제 사람들의 언어 사용

과는 달리 독특하게 '인지'와 '발화'가 나누어질 수 있고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점화자의 분리를 가정한 후 다시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의 특징을 논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참여자 시점에서는 상술한 대로 서술자가 인격과 개성을 지닌 소설 속 한 인물로 상정되므로 종결어미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다. 초점화자는 서술자와 동일인물인 소설 속 한 인물이거나, 동일인물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소설 속 누군가의 시선을 따라갈 것이다. 결국 초점화자가 아무리 변동된다 해도 결국 소설 안 인물이므로, 인격과 개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지니는 '인지' 과정상의 특징 측면에서 문법 요소의 선택이 크게 변하는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의 예문을 다시 살펴보면서 이에 대해 분명히 알 수 있다.

(3) 남편이 아이를 낳자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은 그후로도 오랫동안 <u>**그녀**</u>의 마음자리를 부대끼게 만들었다. (중략)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일을 상상하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한 것인가요? 할 수만 있다면 <u>**그녀**</u>는 남편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다. (중략)자동차 사고로 남편을 잃은 뒤, 우울증에 빠진 여동생을 런던까지 불러들인 건 세희였지만, 낮이면 차양을 드리워 칠흑처럼 어두운 3층 다락방에 누워 좀체 집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녀를 데리고 내셔널 갤러리나 코벤트 가든 따위의 관광지로 데려가는 일은 <u>**내**</u> 몫이었다.(김연수,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

앞서 초점화자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지적한 문장들을 살펴보면, '할 수만 있다면 <u>**그녀**</u>는 남편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초점화자가 '그녀'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남편에게 묻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사람은 서술자인 '내'가 아니라 '그녀'이기 때문이다. 이 때 인지의 과정에 있어서 주체가 '나(네즈미)'에서 역시 소설 속 인물인 '그녀'로 바뀌었을 뿐이므로 내용적인 차원에서는 구분이 되지만 통사적 차원에서 문법 요소의 선택에 있어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때문에 참여자 시점에서는 초점화자의 변화가 문법 요소의 선택에 차이를 불러오지 않으며 우리가 살펴볼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실현 양상에는 영

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참여자 시점의 소설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초점화자가 3인칭의 서술자에서 1인칭의 등장인물로 변화할 수 있는데, 이는 인지상의 큰 차이를 불러온다. 3인칭 서술자는 실체화된 인물이 아니고 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식양태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추측과 같은 인지 과정은 스스로 인격을 갖춘 상태에서 가능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용에 제약이 생긴다. 하지만 다시 초점화자가 등장인물로 변화한다면 초점화자의 '인지'를 통해 비참여자 시점에서도 추측과 같은 인지 과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인식양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따로 분리된 서술자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야기 밖에 있는 3인칭의 서술자이기 때문에 종결어미의 사용의 제약은 유지된다. 고영근·남기심(1993)에서 소설의 지문을 단독적 장면이라고 하고 상대 높임법을 설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도 이러한 특성에 따른 것이다.

# 3. 소설의 시점과 인식양태의 상관관계

이 장에서는 실제 자료를 통해 소설 시점과 인식양태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앞서 시점과 문법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서 지적한 내용들이 실제 자료에 그대로 나타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자료의 분석에는 빈도를 중심으로 한 계량적 방법과 실제 소설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사용할 것이다. 또한 문법적 인식양태 요소뿐만 아니라 어휘적 인식양태 요소인 양태부사 역시 함께 다룰 것이다.

## 3.1. 소설 시점별 인식양태 출현의 계량적 연구

이 절에서는 계량적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소설 시점별 인식양태 출현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먼저 이 장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란 '우언적 구성'과 '어미'에 한한다는 것을 밝힌다. 어휘적 인식양태 요소인 부사의 경우 따로 장을 두어 독립적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먼저 계량적 연구를 위한 자료의 처리 방법 및 빈도 측정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를 살펴본 후 이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대상이 되는 말뭉치 자료는 앞서 1.2.에서 제시한 한국 현대소설들이다.

### 3.1.1. 자료의 처리 및 결과

계량적 연구를 위하여 앞서 그 대상이 되는 소설의 목록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소설들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원시 말뭉치에서 제일 먼저 대화문을 제외하였다. 그 기준은 따옴표("" 혹은 '') 안에 들어간 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인물의 말이 직접 서술부에 서술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기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화문을 제외한 후 각 인식양태 실현요소 형태별로 검색을 하였다. 말뭉치 검색은 Uniconc를 주로 사용하되, 보조적으로 EmEditor에서 정규표현을 활용한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다.

앞서 밝혔듯이 이 장에서 다루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들은 어미와 우언적 구성이다. 이 둘은 모두 문법적 인식양태라는 공통점이 있다. 문법적 인식양태에 대해 먼저 다루고 어휘적 인식양태인 부사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3.3장에서 다룰 것이다.

검색된 결과에는 인식양태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인식양태가 아닌 다양한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기계적으로 검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문맥을 보며 하나하나 분류하였다.

(6) 가. 인식양태와 의무양태의 경우 문장의 의미를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모호한 경우 '어쩌면, 혹시, 아마'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우는 인식양태, '반드시, 꼭' 등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경우는 의무양태로 보았다.8)

나. 인식양태의 화용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따로 제외하지 않고 인식양태에 포함시켰다.

다. 양태적 의미가 아닌 비교나 비유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제외하였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마치'와 같은 부사와 어울릴 수 있는지 여부를 보아 구분하였다. '마치'와 어울릴 수 있으면 비교나 비유의 표현으로 보았으며 '어쩌면, 혹시, 아마'와 같은 부사와 어울릴 경우는 인식양태로 보았다.9)

라. 기타 형태만 같을 뿐 전혀 다른 어휘 역시 의미를 보고 제외시켰다.

상술한 분류 기준 중 (6나)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말하는 것이다.

(7) 가. 인생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8) 이러한 분류 방식은 김창섭(2012)를 참조한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같다'의 통사의미 분류를 나누면서 다양한 의미 분류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마치', '아마'와 같은 부사를 문장에 함께 쓰는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9) 이 방법 역시 김창섭(2012)를 참조한 것이다.

나. 인생이라고 뭐 다릅니까.

(7)의 두 예문에서 양태 실현요소 '-겠-'의 유무에 의한 차이는 인식양태적 차이라기보다는 공손성의 차이라고 보는 게 옳다. 하지만 이것은 인식양태적 용법에서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 전혜영(1995)에서는 공손 표현이 [짐작]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고 박재연(2006)에서도 인식양태의 하위 분류로 다루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선은 인식양태 빈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화용적으로 사용되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는 '-겠-'을 비롯하여 '-ㄹ/ㄴ 것 같-', '-ㄹ/ㄴ 듯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들은 화용적으로 사용될 때 공손함, 직접적인 판단의 보류 등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다)와 같은 경우는 '-ㄹ/ㄴ 것 같-', '-ㄹ/ㄴ 듯하-' 등에서 발견되는 용법인데 다음 예문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8) 가. 속에서 무엇이 통째로 왈칵 뒤집히는 것 같았다.
나. 세상이 빙글빙글 급회전하는 것 같았다.
다. 비행기는 구름과 더불어 천천히 날고 있는 듯했다.
라. 1층은 결사대원들의 투쟁가 소리로 지진 난 듯했다.

이러한 사용은 비교나 비유의 용법에 속하며 정보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인식양태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식양태의 빈도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같은 자료의 처리 및 분류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각 시점별 빈도측정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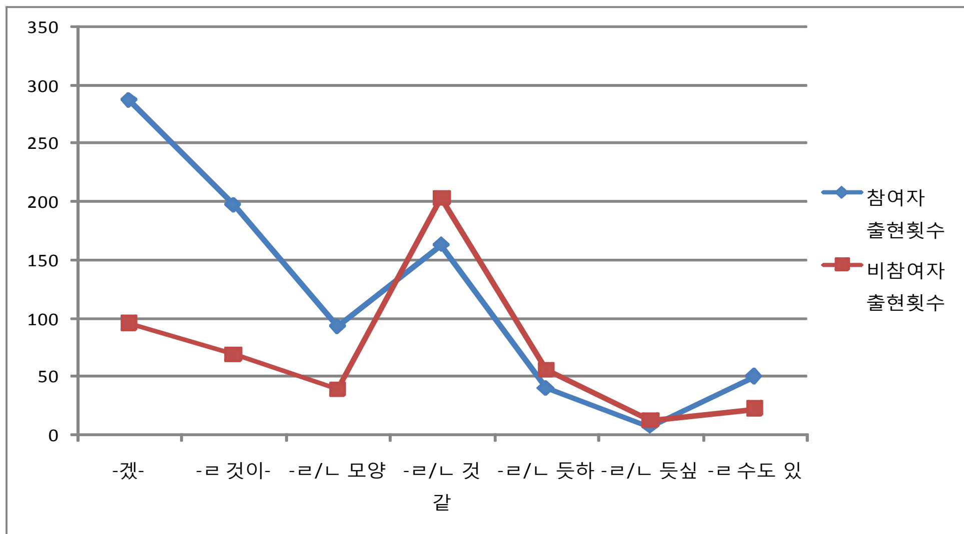
---

10) 각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텍스트 내에서 검색된 용례 전체를 인터넷에서 다음 링크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단지 형태만을 검색한 원시 검색 결과(인식양태가 아닌 것들도 검색된 것)은 https://www.dropbox.com/s/0uts63zoly1o7j1/raw.zip 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자료 처리 기준에 따라 인식양태에 속하지 않은 것에 %제외%라는 태그를 단 것은 https://www.dropbox.com/s/ftlswwy4wia4g09/tagged.zip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표3 시점별 빈도측정 결과>

| 형태 | 참여자 | | 비참여자 | |
|---|---|---|---|---|
| | 출현 횟수 | 문장대비 비율11) | 출현 횟수 | 문장대비 비율 |
| -겠- | 287 | 2.270390001 | 98 | 0.852396277 |
| -ㄹ 것이- | 197 | 1.558421011 | 69 | 0.600156563 |
| -ㄹ/ㄴ 모양이- | 93 | 0.735701289 | 39 | 0.339218927 |
| -ㄹ/ㄴ 것 같- | 163 | 1.289454948 | 203 | 1.765678003 |
| -ㄹ/ㄴ 듯하- | 40 | 0.316430662 | 56 | 0.487083587 |
| -ㄹ/ㄴ 듯싶- | 7 | 0.055375366 | 13 | 0.113072976 |
| -ㄹ 수도 있- | 50 | 0.395538328 | 23 | 0.200052188 |
| 무표지 추정비12) | | 93.37868839 | | 95.642341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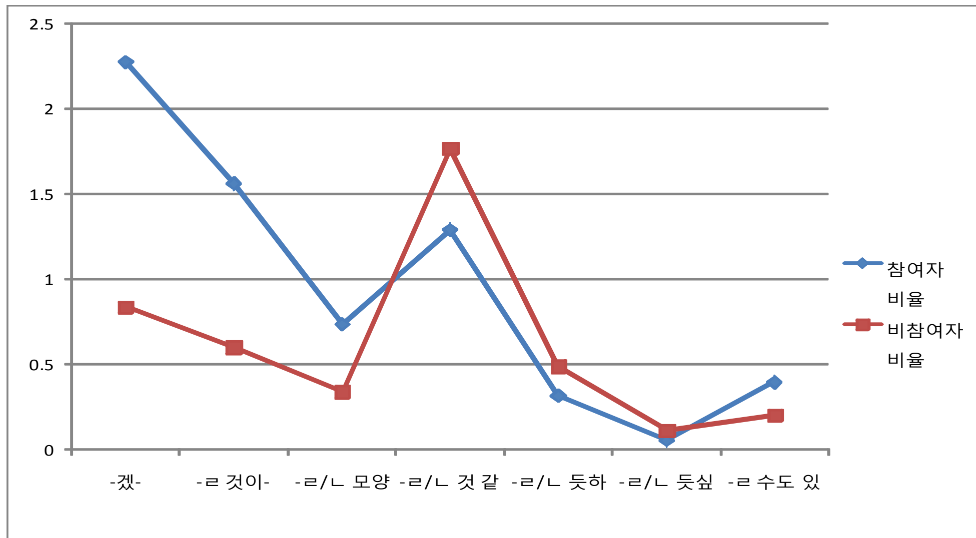
<그래프1 인식양태 실현요소별 빈도 그래프>




11) 문장대비 비율은 '빈도/전체 문장 수*100'을 하여 도출된 결과로 전체 문장 중 양태 실현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체문장 수는 참여자 12641, 비참여자 11497이다.

12) 무표지 추정은 '100-문장대비 비율의 전체 합'으로 추산한 것이다. 즉, 전체 문장에서 양태 실현 요소가 들어간 문장을 뺀 것의 비율이다.

<그래프2 인식양태 실현요소별 문장대비 비율 그래프>




이러한 결과는 앞서 시점의 특징에 대해 논할 때의 예측과 같은 부분도 있지만 크게 다른 부분도 존재한다. 먼저 일치하는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참여자 시점보다 참여자 시점에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더 높은 빈도로 출현한다. 둘째, 어미 '–겠–'이 참여자 시점에서만 상당히 높게 등장한다. 이 역시 '–겠–'의 현장성의 의미가 참여자 시점과 어울릴 것이라는 예측과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과 다른 부분 역시 많다. 첫째,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비참여자 시점의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빈도이다. 비록 참여자 시점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나긴 하지만, 유의미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오히려 근사한 값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둘째, '–ㄹ/ㄴ 것 같–', '–ㄹ/ㄴ 듯하–'의 경우 참여자 시점보다 비참여자 시점에서 오히려 더 높은 빈도를 보인다. '–ㄹ/ㄴ 듯싶–'의 경우도 그러하지만 두 시점에 모두 낮은 빈도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전에 시점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했던 내용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미리 예측한 내용은 아니지만 빈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특징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 시점의 경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겠-'이며 '-ㄹ 것이-'와 '-ㄹ/ㄴ 것 같-'가 그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형태이다. 반면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ㄹ/ㄴ/ 것 같-'의 빈도가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겠-'이지만 참여자 시점만큼 눈에 띄는 빈도는 아니다.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는 <그래프1>을 통해 더 확실히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빈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 분포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둘째, '-ㄹ/ㄴ 것 같-'의 빈도가 두 시점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셋째, 대부분의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출현 빈도는 참여자 시점에서 높게 나타나지만 '-ㄹ/ㄴ 것 같-'과 '-ㄹ/ㄴ 듯하-'의 경우는 비참여자 시점에서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넷째, 참여자 시점에서는 '-겠-'의 빈도가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이렇게 빈도 측정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점들을 살펴보면, 참여자 시점의 경우 주로 이전에 예측한 바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비참여자 시점은 예측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상한 바는 아니지만 충분히 주목할 만한 다양한 특징들 역시 발견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예외적인 결과를 대상으로 그러한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 3.1.2. 결과에서 나타나는 예외의 원인 분석

이 절에서는 실제 자료 결과에서 나타난 예외적인 결과들을 분석하기 위해 인식양태 실현요소별로 그 특징을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특히 비참여자 시점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소설 텍스트 내에서 나타나는 시점의 분포와 그 분포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생각해볼 점은, 참여자 시점에서 나타나는 인식양태에 대한 연구와 비참여자 시점에서 나타나는 인식양태에 대한 연구가 그 접근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참여자 시점에서 서술자는 작중인물로, 구체적인 인격을 가진 존재이다. 때문에 어떠한 정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 즉 인식양태 실현요소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참여

자 시점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접근할 때는 많은 인식양태 실현요소 중에서 왜 이 요소를 많이 혹은 적게 사용하였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인식양태 실현요소 각각의 의미와 소설 시점에 따른 특징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전반적인 한국어의 화자의 선호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비참여자 시점에서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출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왜 없어야 하는 것이 나타나는가?”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엄격하게 말해서 원칙적으로 비참여자 시점에는 한국어의 인식양태가 실현요소가 등장할 수 없다. 한국어의 인식양태 실현요소는 모두 [개연성]이나 [가능성]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확실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만 등장할 수 있다. 추측을 위한 전제 중 하나는, 그러한 추측을 할 ‘자아’ 혹은 화자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자아 없이는 추측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아의 존재는 추측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참여자 시점의 서술자는 기본적으로 작중 등장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추측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편집자적 논평’과 같은 기술을 통해 작가 혹은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바가 있지만 이는 특수한 기법으로 소설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전형적인 비참여자 시점의 속성이라 보기에도 힘들다. 애초에 추측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희박한 비참여자 시점에서 한국어의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등장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비참여자 시점의 서술자는 전지(全知)하기 때문에 추측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조차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비참여자 시점 중에서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제한된 정보만을 독자(청자)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단지 문체적인 선택의 문제로, 인물 내면을 포함한 특정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을 뿐이다. 이 경우 서술자가 전략적으로 특정 정보를 주지 않을 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측의 표현을 써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비참여자 시점에서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외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설명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초점화자의 변화에 의한 현상이다.

Genette(1972)에서는 서술법(Mood)와 음성(Voice)을 나누었기 때문에 설령 음성적 차원에서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존재한다 하여도 서술법의 차원에서 초점화자가 작중인물로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변조라 하며, 특히 이러한 외적초점화에서 내적초점화, 즉 이야기 밖의 시각에서 한 인물의 시각으로 변조하는 것을 '정보 더 주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아예 시점이 바뀌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하나의 작품에서 반드시 하나의 시점만이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복수의 시점이 한 소설 내에서 혼용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확대하여 문장 단위 혹은 절 단위에서도 시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 두 요인 모두 소설에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두 가지 설명에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정해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설명, 즉 초점화자의 변화라는 설명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시점의 변화의 부분은 엄격하고 제한된 측면에서만 허용할 것이다.

그 이유는 서술법(Mood)와 음성(Voice)을 분류하는 설명이 더 많은 경우를 더 수월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설명은 소설 내부의 의사소통 구조와 서사구조를 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시점이 이동했다고 보는 것은 결국 초점화자와 서술자가 분리되지 않으며 항상 동일하다는 전제를 지키는 쪽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한 문장 내에서도 심층적으로 파고들었을 때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음은 Bal(1985)에서 제시한 헨리 제임스의 『대사들』의 한 문장이다.

(9) 엘리자베스는 창백한 모습으로 생각에 잠긴 채, 거기 누워 있는 그를 보았다.

이 문장은 두 개의 시선이 겹쳐 있는데, '창백한 모습으로'라고 엘리자베스를 관찰하는 제3자의 시선과, 누워 있는 그를 보는 엘리자베스의 시선이 바로 그것이다. 쉼표 뒤의 문장 즉 '거기 누워 있는 그를 보았다'의 주어를 3인칭인 엘리자베스가 아니라 1인칭인 '나(엘리자베스)'로 바꾸어도 문장은 성립된다. 그

러나 '창백한 모습으로 생각에 잠긴 채'의 문장을 '나'라는 1인칭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만약 서술자가 '그의 모습을 보는 엘리자베스'에 대해 서술한다면 다음의 문장이 더 정확하다. '(나는) 창백한 모습으로 생각에 잠긴 채, 거기 누워 있는 그를 보는 엘리자베스를 보았다.' 혹은 '(나에게) 창백한 모습으로 생각에 잠긴 채, 거기 누워 있는 그를 보는 엘리자베스가 보였다.' 만약 이 문장을 '화자=서술자이며 시점이 변화한다'라는 법칙에 의해 분석하자면 문장을 절 단위로 끊어서 시점의 변화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문장 내에서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도 어색하고 무리한 설정이다. 하지만 서술자와 초점화자를 분리한다면 문장은 그런 번거로움 없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9)의 문장의 서술자는 외부의 누군가이며 '거기 누워 있는 그를 보았다'에서 초점화자가 엘리자베스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초점화자는 시선을 제공할 뿐이고 실제 말하는 이의 목소리는 변하지 않으므로 어법상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하는 부담이 없다.

초점화자와 서술자를 분리하는 설명 방식을 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만약 정말 시점이 바뀌는 것이라면, 왜 바뀌는 그 수많은 장면마다 주어 '나'가 나타나지 않고 아주 일부에서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의 대상인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문장에서도 주어가 '나'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자유 직접 화법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한 1인칭 주어의 저지 역시 시점 자체가 바뀐다는 가정보다는 초점화자 차원에서의 변화라는 가설에 힘을 실어준다.

그렇다면 이제 비참여자 시점에서 인식양태가 나타나는 현상을 초점화자의 변화라고 부르기로 하자. 그러나 초점화자의 변화라는 것은 단순히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애초에 초점화, 초점화자의 정의가 서술자와는 분리된 '보는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이므로 이 자체가 이러한 현상의 이유나 동인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소설에서 초점화자의 변화 혹은 내적초점화가 일어나는 이유를 다시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다시 비참여자 시점에서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식양태 실현요소 출현의 첫 번째 방식은 인용으로 간접화법이나 자유직접화법, 그 밖에 다양한 인용에 의한 출현이다. 간접화법과 자유직접화법의 경우 표면적 형태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작중인물의 말이나 생각(독백)이 따옴표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사건을 진행시키는 서술부 안에서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10) 가. 그래서 메리도 괜찮겠냐고 여러 번 걱정스러운 듯 그녀에게 물었었다.
 나. 그것이 닥터 리의 전화라면, 그가 바빠서 오늘 약속을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면 하고 기대하며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다. 그는 성장해도 몸집이 그다지 커지지 않는 품종의 토끼를 키우고 있는데, 자신의 채식 습관은 아무래도 토끼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10)의 예문은 모두 직접화법으로 바꾸어서 소설에서 대화나 독백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서술자의 입을 통해 다시 말하는 듯한 간접화법으로 바꾸어 서술한 것이다. 이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다음 예문 (11)과 같이 서술부에 그대로 독백 등을 노출하는 자유 직접 화법을 사용하는 수도 있다.

(11) 가. 기왕 기술을 배웠으면 큰 데 가서 써먹어야지, 맨날 장꾼들 코묻은 쌈짓돈이나 털어 되겠어 – 언젠가 취한 날치가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지만 명훈은 녀석이 그렇게 빨리 실행할 줄은 몰랐다.
 나. 그 술집에 가서 계산을 하는 남자들을 용서할,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과연 이 땅에 있을 것인가.

간접화법의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서술자가 인식양태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자유직접화법 역시 서술자의 목소리가 아닌 작중 인물의 목소리를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 보아, 따옴표(“”나 ‘’) 안의 문장들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듯이 이러한 인용구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자유직접화법과 같이 작중인물의 목소리가 그대로 서술부에 노출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따옴표 안에 그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체적 효과를 가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러한 서술은 단순히 따옴표를 표시하지 않은 대화문이 아니라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목소리를 '다시 말하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 역시 우리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 일반적인 초점화의 변조(Alteration)에 의한 출현 방식이다. 초점화의 변조의 개념을 넓게 확장한다면 앞서 다룬 인용 역시 초점화의 변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초점화의 변조는 조금 좁은 의미로, 작중인물의 언어를 '다시 말하기'에 해당하는 인용과는 달리 '감정이입(Empathy)처럼 보이는 초점의 변조를 말한다. Genette(1972)에서는 작중 인물에 시점이 고정되는 것을 내적초점화라 하였는데, 이러한 내적초점화는 소설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도 있지만 서술 과정에서 변이를 통하여 일부분에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변조를 다시 '정보 제한'과 '정보 더 주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외적초점화에 의해 진행되는 서술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내면으로 들어가 내적초점화로 전이되는 과정은 '정보 더 주기'에 해당한다. 다음 (12) 예문은 이러한 '정보 더 주기' 변조에 따른 내적초점화라고 할 수 있다.

(12) 가. 세희의 말대로 세희와 혁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바랐다. 그것이 모두를 위해서 좋<u>을 듯싶</u>었다.

나. 제시, 그녀는 제시를 떠올렸다. 그녀의 용기라면 충분하고도 남<u>을 것 같</u>았다.

물론 이러한 내적초점화로의 변조 외에 초점 화자가 바뀌는 경우도 가능하다. A의 시선을 중심으로 말하다가 다시 B로 초점 화자를 바꾸어 이야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초점화의 변조로 같이 다루었다. 이러한 현상의 경우 참여자 시점에서도 활발하다.

마지막으로 초점화의 변조와 전혀 상관없이 비참여자 시점의 서술자가 개성과 자아를 갖춘 존재처럼 바뀌어 인식양태 실현요소를 사용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실체화'라고 부를 것이다.

(13) 경찰서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데 이승만 대통령의 사진을 커다란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둔 음식점 안에서 시킨 국밥을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문득 물었다. 새새끼마냥 재재거리는 옥경이에 비해 시무룩이 말이 없는 철이 그제서야 이상하게 느껴진 모양이었다.

(13)은 비참여자 시점의 소설이며, 마지막 문장에 '-ㄴ 모양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인식양태를 사용한 초점화자는 누구라고 확정지을 수 있을까? 이 장면에서 작중인물이라면 '철'과 '어머니', '옥경' 뿐이며 그 외에 관찰하는 이는 없다. 하지만 이 문장은 이 세 작중인물 중 누구의 것이라고 확정짓기 어렵다. 이 맥락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서술자, 즉 이야기 외부에 존재하는 관찰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상으로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나타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초점화의 개념과 실제 말뭉치 자료에서의 검색 결과, 그리고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다음 절에서는 비참여자 시점에서 보이는 예외를 분석하고 그 동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1.3. 비참여자 시점의 예외 분석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처음 예측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분류한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출현 방법의 종류 3가지에 대한 빈도를 각 인식양태 실현요소별로 다시 헤아렸다.[13] 3가지 출현 방법은 각각 '인용'은 직접화법 혹은 간접화법을 말하며 '초점화'는 초점화에 의한 변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실제화'는 위에서 설명한 실제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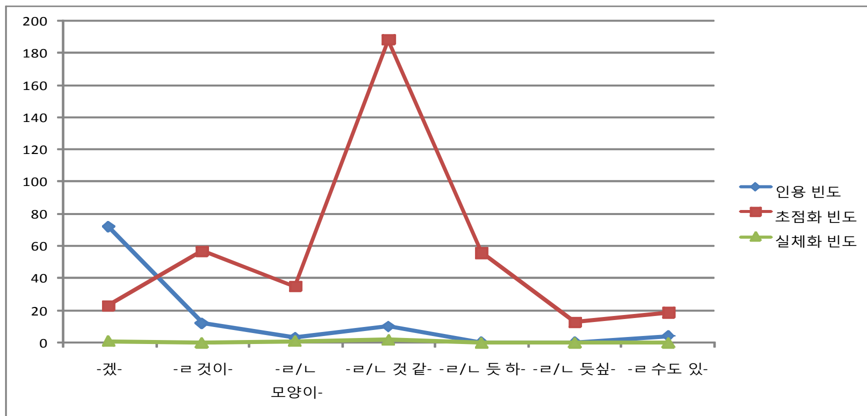
---

13) 결과 자료는 https://www.dropbox.com/s/vswqlkd87snkv6b/tagged2.zip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각각 %인용%, %초점화%, %실체화%로 태그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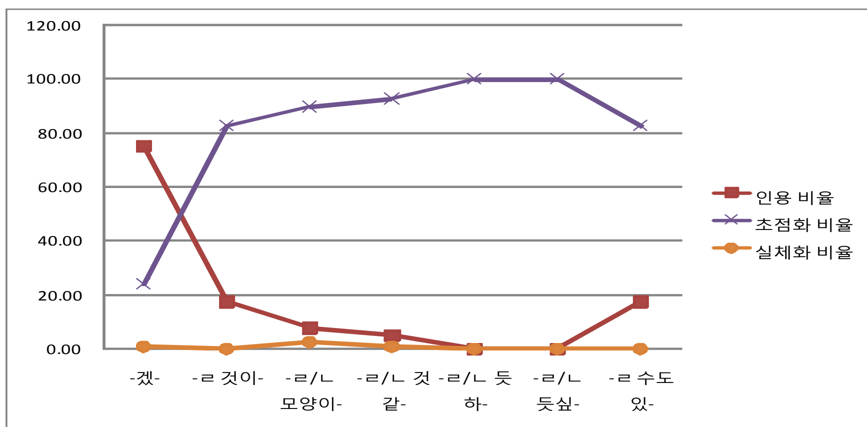
<표4 비참여자 시점의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출현 방법 빈도>

| | | -겠- | -ㄹ 것이- | -ㄹ/ㄴ 모양이- | -ㄹ/ㄴ 것 같- | -ㄹ/ㄴ 듯 하- | -ㄹ/ㄴ 듯싶- | -ㄹ 수도 있- |
|---|---|---|---|---|---|---|---|---|
| 인용 | 빈도 | 72 | 12 | 3 | 13 | 0 | 0 | 4 |
| | 비율 | 75.00 | 17.39 | 7.69 | 4.93 | 0.00 | 0.00 | 17.39 |
| 초점화 | 빈도 | 25 | 57 | 35 | 188 | 56 | 13 | 19 |
| | 비율 | 23.96 | 82.61 | 89.74 | 92.61 | 100 | 100.00 | 82. |
| 실체화 | 빈도 | 1 | 0 | 1 | 2 | 0 | 0 | 0 |
| | 비율 | 1.04 | 0.00 | 2.56 | 0.99 | 0.00 | 0.00 | 0.00 |

<그래프3 비참여자 시점의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출현 방법 빈도 그래프>




<그래프4 비참여자 시점의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출현 방법 빈도 비율 그래프>



### 1) -겠-

'-겠-'의 경우 일단 다른 모든 인식양태 실현요소와는 전혀 다른 분포를 보인다. <그래프3>을 보면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경우 초점화 변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겠-'의 경우는 이와 달리 인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의 경우 '-겠-'을 제외한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들에서 크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또한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은 비참여자 시점에서 나타나는 '-겠-'과 가장 많이 결합하는 서술어는 '모르-'로, 이 둘의 결합형인 '모르겠-'은 총 27회 등장한다는 점이다. 참여자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총 57회 등장한다. 각각 전체 '-겠-' 출현의 27.5%, 19.8%를 차지하고 있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르겠-'은 대표적인 '-겠-'의 화용론적인 사용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모른다'와 '모르겠다'의 의미 차이는 추측 여부의 차이보다는 공손성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겠-'의 의미와 연관되어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겠-'의 경우 현장성이라든지 실제 오감을 통한 감각정보에 의한 추측에 사용된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박진호(2010ㄴ)에서 제시한 다음 예문을 보면 그러한 특징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4) '-겠-'과 '-ㄹ 것이-'의 비교(박진호 2010ㄴ:18)

가. (먹구름이 가득 낀 하늘을 보며) 곧 비가 오겠다./?올 것이다.

나. (기상 관측 데이터를 보고 예측하건데) 내일 비가 올 것이다./?오겠다.

다. (테이블 끝에 걸쳐 있는 공을 보며) 떨어지겠다./??떨어질 것이다.

라. (테이블을 굴러가고 있는 공의 속도와 가속도, 역학 법칙 등을 고려해 계산했을 때) 공이 테이블에서 떨어질 것이다./?공이 떨어지겠다.

감각에 의한 정보를 사용한 추측, 현장성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는 의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현장에 있어야지만 감각을 통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는 나타나기 쉽지만 서술에는 나타나기가 쉽지 않다.

Prince(1982)에서는 소설에서 사용되는 화법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14)

(15) 가. 서사화된 담화: 그는 오후에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나. 자유 직접 화법: 나는 그를 죽일 테다.
다. 정상적 직접 화법: 그는 말했다. “나는 그를 죽일 테다.”
라. 자유 간접 화법: 그는 오후 다섯시에 거기에 가서 그를 죽이려 했다.
마. 정상적인 간접 화법: 그는 자신이 오후 다섯시에 거기에 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말했다.

이 중 서사화된 담화를 사용하면 화자나 수화자가 작중인물과 그들의 언표 행위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자유 직접 화법을 쓰면 가장 거리가 가까워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사화된 담화를 사용하면 언어 사건을 비언어적인 사건인 것처럼 고쳐 말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앞서 ‘인용’에 포함시켰던 범주는 자유 직접 화법, 정상적인 간접 화법이다. 자유 직접 화법과 서사화된 담화가 각각 작중인물과의 거리감의 끝과 끝을 차지하고 있다면 정상적인 간접 화법은 그 중간 어디쯤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정상적인 간접화법의 거리감의 정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화자의 말을 비언어적인 사건으로 고쳐 말하여 작중인물과의 거리를 가장 멀게 느껴지게 만드는 서사화된 담화보다는 그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분명하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현장감이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한 당장 (15가)의 예문에 ‘-겠-’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문장이 어색해진다는 것 또한 관찰할 수 있다. 반면 (15나)나 (15마)의 경우는 전혀 어색하지 않게 문장을 만들 수 있다.

‘모르겠-’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모르겠-’의 ‘-겠-’은 공손성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보이는데, 공손성이라

14) Prince(1982), 최상규 역(1999)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73-75

는 화용론적 범주 자체가 대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요소이다. 대화에는 당연히 2인 이상의 참여자가 필요하며, 특히 공손성이란 상대에 따라 나의 대화 방책을 결정하는 범주이기 때문에 대화 상황이 아니라면 등장하기 힘들다. 소설의 대화문이 아닌 서술부에서 '모르겠-'이 나타난다는 것은 마치 대화와 같은 현장감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설명할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실제 인용이 아닌 단순 초점화 변조의 '모르겠-'과 '-겠-'을 제외한 예문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문체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6) 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모르지만, 그는 사실 플라스틱 제품을 거의 생리적으로 싫어하던 터였다.
나. 그녀는 십 년쯤 지각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모른다.
다. 그녀가 한마디 한다면 어머니는 아마 좋아서 날아갈지도 모르겠다./모른다.

(16)의 예문들에 포함되어 있는 '-겠-'을 빼고 '모르-'만 남기면 '-겠-'을 사용한 문장에 비해 실제의 인물이 청자(독자)에게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사라져 버리고, 전형적으로 개성이 없는 비참여자 시점의 서술처럼 느껴지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겠-'이 비참여자 시점에서 나타나는 원인은 작중 인물과 청자(독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 과정, 혹은 오감으로 정보를 받아들였다는 표지, 현장성의 느낌을 높이기 위한 선택 정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ㄹ/ㄴ 것 같-**

'-ㄹ/ㄴ 것 같-'에 관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와 마찬가지로 왜 비참여자 시점에서 등장하는가? 둘째, 왜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보다 월등한 빈도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왜 비참여자 시점에서 초점화의 변조가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의 답과 동일할 것이다. '-ㄹ/ㄴ 것 같-'의 경우 대부분 '초점화의 변조'에 의해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Genette(1972)에서 초점화의 변조와 관련하여 '정보 더 주기'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외적 초점화에서 내적 초점화로 변조되면서 등장 인물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 초점화된 인물이 아닌 다른 등장인물의 생각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비참여자 소설은 초첨화자가 인물의 내면에 들어가지 않고 객관적인 서술만을 하는 외적 초점화 상태가 아닌, 인물의 내부까지도 서술하는 제로 초점화 기술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서술자가 작중인물의 내면까지 서술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내적초점화로의 변조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만약 내적초점화를 정보 전달의 필요성에 의한 과정이라기보다는 문체적 효과를 위한 '일탈'의 과정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변조는 일탈을 통한 긴장감의 환기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ser(1978)는 전체적으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중에 생겨나는 일탈은 새로운 긴장감을 준다고 하였다. 내적초점화로의 변조 역시 전체적으로는 기존의 초점화 위치가 고수되면서 부분에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긴장감과 신선함을 불러일으키고 이는 소설의 미적인 부분을 더 고양시킬 수 있다.

소설의 서술 구조가 인간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와 닮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러한 초점화자의 변조를 화용론에서 말하는 대화 격률의 위배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격률의 위반이 대화 참여자로 하여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특별한 의미를 가져온다면 일관되게 유지해오던 초점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특별한 의미를 상기하게 되는 것 또한 자연스럽다.

또한 초점화의 변조 중 내적초점화는 자유 직접 화법과 같은 내적 독백과도 연관이 깊다. 자유 직접 화법이 화자나 청자(독자)를 작중인물에게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처럼, 내적초점화로의 변조 역시 독자와 작중인물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기능을 수행한다. 작중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사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마치 그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즉 내적초점화로의 변조를 통해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도 있으며, 격률을 위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긴장감을 통해 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청자와 작중인물간의 거리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내적조점화로의 변조의 기능은 비단 '-ㄹ/ㄴ 것 같-'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 초점화 변조에 의한 인식양태 실현요소들이 나타나는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빈도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것이 꼭 소설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근용(2007)에서는 다른 추측의 양태 표현들을 '-ㄹ/ㄴ 것 같-'이 대신할 수는 있지만 '-ㄹ/ㄴ 것 같-'의 자리를 다른 양태 표현들이 언제나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ㄹ/ㄴ 것 같-' 구분의 확산에 대해 지적하면서, 확실한 사실임에도 추측 표현인 '-ㄹ/ㄴ 것 같-'을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실제 예문을 보면 '-ㄹ/ㄴ 것 같-'이 특별히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태도라기보다는 '-겠-'과 마찬가지로 화용론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음을 볼 수 있다.

(17) 가. 대머리의 바지 혁대걸이에는 열 개도 넘을 것 같은/넘는 키들이 매달려 짤랑짤랑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 드라이한 시간들은 있었어도 이렇다 하게 특별히 슬픈 날은 없었던 것 같다./없었다.

다. 그 대목에서 그녀의 얼굴이 한층 붉어지는 것 같았다./붉어졌다.

(17)의 예문들에서 '-ㄹ/ㄴ 것 같-'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크게 추측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애초의 추측의 의미를 위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겠-'이 그러하듯이 추측으로부터 파생된 공손성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용법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용법들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용법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ㄹ/ㄴ 것 같

-'가 자주 쓰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ㄹ/ㄴ 것 같-'는 기존의 추측의 의미에서 공손성의 의미로 용법이 확장되고 동시에 언중들로부터 사용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소설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의미의 경쟁 표현 중 '-겠-'과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설 서술부에서 [현장성]과 같은 특수한 의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는 저지되고 대신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 중 범용의 '-ㄹ/ㄴ 것 같-'이 선택된다는 가정도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ㄹ/ㄴ 것 같-'의 높은 빈도는 '-ㄹ/ㄴ 것 같-' 자체의 기존의 높은 빈도, 범용성, 화용론적 사용으로까지의 의미 확장, 마지막으로 '-겠-'의 저지로 인한 반사 효과 등을 이야기 할 수 있다.

3) -ㄹ/ㄴ 모양이-

'-ㄹ/ㄴ 모양이-'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실체화이다. 실체화는 그 자체의 빈도가 너무 낮아 엄밀한 연구로 이어나가기에는 힘들지만, '-ㄹ/ㄴ 모양이-'에서 1회 뿐이지만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점화와 인용만이 인식양태 사용의 동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ㄹ/ㄴ 모양이-' 외에 실체화 용법이 나타나는 경우는 '-겠-'과 '-ㄹ/ㄴ 것 같-' 뿐인데, 이 두 형태 모두 '-ㄹ/ㄴ 모양이-'에 비해서 훨씬 출현 빈도가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인상적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ㄹ/ㄴ 모양이-'의 의미와도 충분히 연관을 찾을 수 있다. 김동욱(2000)에 따르면 '-ㄹ/ㄴ 모양이-'는 객체추측을 나타내는데, 객체추측이란 추측에 있어서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때문에 단순한 정보전달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며, 화자의 책임성 정도가 낮아지게 된다.

만약 개성과 자아가 없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비참여자 시점의 서술자가 마치 참여자 시점과 같이 자신의 의견과 태도를 말하고자 할 때 가장 진입 장벽이 낮은 방법은 아마도 '-ㄹ/ㄴ 모양이-'와 같은 객체추측의 인식양태 실현요소를 사용하여 한 발 떨어진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말뭉치 자료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기타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경우 그 행동이 위에 서술한 인식양태 실현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로 내적초점화로의 변조를 통해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전달을 위한 전략의 측면과 긴장성을 부여하는 예술적 측면에 따른 선택으로 보인다. 또한 작중인물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 3.1.4. 참여자 시점의 분포 분석

참여자 시점의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분포의 연구는 비참여자 시점과는 달리 '왜 안 나타나야 할 요소들이 나타나는가?'의 질문을 던질 필요는 없다. 대신 다양한 인식양태 실현요소 중 어떠한 것들이 '선택'되는지에 대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빈도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는 '-겠-'이고,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는 '-ㄹ/ㄴ 듯싶-'이다. 높은 빈도와 낮은 빈도를 보이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실제 언중들의 언어생활에서 그와 비슷한 빈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험적인 측면에서 평가했을 때, '-ㄹ/ㄴ 듯싶-'와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의 구어에서 자주 접하기 힘든 인식양태 실현요소다. 반면 '-겠-'이나 '-ㄹ 것이-'(구어의 경우 축약형 '-ㄹ 거-'도 포함), '-ㄹ/ㄴ 것 같-'은 일상 언어생활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빈도에 대한 접근에 더하여 몇 가지 설명이 더 필요한 점을 서술하겠다.

1) -겠-, -ㄹ 것이-

비참여자 시점과 마찬가지로 참여자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의 결합 형태가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총 57회 등장한다. 전체 '-겠-'의 19.8%를 차지하고 있어 비참여자 시점보다는 낮지만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화용론적인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겠-'의 경우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현장성]과 같은 특수한 의미 때문에 오히려 저지되는 경향도 있었으나 그러한 저지 요인이 없는 참여자 시점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사용되어,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ㄹ 것이-'의 거의 두 배에 가깝다.

반면 '-ㄹ 것이-'의 경우 분명 '-겠-'보다는 낮은 빈도를 보이지만 비참여자 시점에 비해서는 확연히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화용론적 사용도 드러난다.

(18) 가. 이것은 누구에게도 드리는 글이 아닐 것입니다./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일 뿐.
나. 수경은 이내 웃는 낯을 지었다. 오늘 이후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18)의 예문 역시 '-ㄹ 것이-'를 제외한 내용과 추정의 의미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겠-'만큼 활발하게 화용적인 사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2) -ㄹ/ㄴ 것 같-, -ㄹ/ㄴ 듯하-

비참여자 시점과 마찬가지로 낮다고는 보기 힘든 빈도를 보이기는 하지만 '-겠-'이나 '-ㄹ 것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인다. 특이한 사항은 이 두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경우 비참여자 시점보다 오히려 낮은 빈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를 분명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비참여자 시점에서의

‘-겠-’의 저지로 인하여 대신 사용되었던 수요가 참여자 시점에서는 없기 때문에 ‘-겠-’의 사용이 활발한 대신 ‘-ㄹ/ㄴ 것 같-’, ‘-ㄹ/ㄴ 듯하-’의 사용 빈도가 낮아졌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3) -ㄹ/ㄴ 모양이-

‘-ㄹ/ㄴ 모양이-’의 경우 역시 비참여자 시점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빈도를 보여주는 인식양태 실현요소 중 하나이다. ‘-ㄹ/ㄴ 것 같-’이 비참여자 시점에서 더 높고 참여자 시점에서 더 낮은 빈도를 보이는 데 비해 ‘-ㄹ/ㄴ 모양이-’는 참여자 시점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비교적 높은 빈도의 이유로는 우선 ‘-ㄹ/ㄴ 모양이-’의 의미를 들 수 있다. 앞서 ‘-ㄹ/ㄴ 모양이-’가 ‘객체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서술하였는데 ‘-ㄹ/ㄴ 모양이-’는 그 뿐만 아니라 시각으로 인지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인식양태 실현요소이기도 하다. 다음 안주호(2004)에서 제시한 예문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 ‘-ㄹ/ㄴ 모양이-’의 판단 출처(안주호 2004:167-168)

가. (간을 보면서) 간이 좀 짠 *모양이야/듯하다/것 같다.

나. (의자를 만져보면서) 이건 너무 딱딱한 *모양이다./듯하다/것 같다.

다. (헤드폰을 끼고) 소리가 너무 큰 *?모양이다./듯하다./것 같다.

이처럼 시각을 통한 감각정보를 근거로 하는 인식양태 실현요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참여자 시점보다는 참여자 시점에서 다 활발하게 쓰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여자 시점은 작중인물의 눈을 통해 서사 세계를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참여자 시점은 직접 오감을 통한 지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ㄹ/ㄴ 모양이-’를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 4) -ㄹ 수도 있-

‘-ㄹ 수도 있-’의 경우 비참여자 시점보다 참여자 시점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 또한 이 연구에서 처음 예측했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다른 특별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ㄹ 수도 있-’ 역시 화용론적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연구의 말뭉치 검색 결과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 3.2. 소설 시점별 인식양태 출현의 질적 연구

이 장은 앞선 장과는 달리 질적 연구를 통해 소설 시점별 인식양태 출현의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앞의 내용에서는 주로 자료에서 나타나는 표면적인 현상을 위주로 연구하였다면 이 장에서는 소설의 구체적인 장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맥 내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인식양태의 사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 3.2.1 자료의 선정 및 분석 방법

이 장에서는 질적인 연구를 위해 앞서 계량적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료 중 일부만을 선정해서 연구할 것이다. 참여자 시점에서는 김연수의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를,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최성각의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를 각각 선정하였다. 이 소설들은 모두 90년대 이후 창작된 소설로 일반적인 현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시점의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술자와 초점화자가 분리되어 있는 장면이 전반적으로 잘 나타나는 자료이기도 하다.

김연수의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는 2005년 발표된 소설집 『나는 유령작가입니다』에 수록된 단편으로, 죽은 남편에 대한 마음으로 괴로워하다 죽음에 이르는 ‘그녀’라는 인물을 관찰자인 ‘네즈미’라는 인물의 눈으로 서술하는 소설이다. 관찰자인 네즈미의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그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어 마치 비관찰자 시점의 소설처럼 읽히기도 한다. 최

성각의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1998년 소설집 『부용산』에 수록된 것으로 주인공인 '그'가 약수터에서 약수를 떠오는 일을 시작하면서 겪고 생각한 일들을 서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소설 모두 앞선 계량적 연구에서 다루어진 말뭉치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두 소설 내에서 전체 문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위로 예문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인식양태 실현요소들의 쓰임을 다른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예문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 아닌 '장면'을 중심으로 할 것이며 장면에서 드러나는 인식양태 실현요소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시표현, 인물, 화법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점에 따른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사용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3.2.2. 참여자 시점 소설의 질적 연구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참여자 시점 소설에서의 초점화자 변화의 양상이다. 앞서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초점화자가 변하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참여자 시점은 그러지 못했다. 그러나 참여자 시점에서도 초점화자가 다른 작중인물로 이동할 수 있음을 관찰하고, 소설의 거시적인 구조에 따라 초점화의 변조가 어떻게 일어나는 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소설의 서두 부분은 서술자인 네즈미의 독백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20) 그녀에 대해 말해야겠다. (중략) 나는 지금 그 풍경이 내다보이는 창문 앞 작은 책상에 앉아 이 글을 쓴다. 비거스렁이를 몰고 온 땅거미의 세계로 아직 밤의 본대는 진주하지 않았지만, 이 글이 끝날 즈음이면 플레어스커트처럼 검은 장막을 치렁치렁하게 드리우며 우리를 고립시킬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어둠속으로 젖어들 것이다. 우리는 저마다 고독한 존재로 남을 것이다. 서로 다른 해류를 헤엄치는 물고기들처럼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가까워졌다가는 거무레한 얼굴로 이내 멀어질 것이다. 작별인사도 없이. 꿈결처럼.

(20)에서 반복적으로 '-ㄹ 것이-'가 등장한다. 강한 개연성의 의미를 가진 인식양태 실현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마치 확인이나 단언과 같은 효과까지 드러난다. 이 부분에서는 초점화자도 서술자도 모두 '나'이다. 그러나 이야기가 진행되고, '그녀'가 등장하면서 초점화의 변조가 일어난다.

(21) 일단 남편의 말에 그녀는 '조금만,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대답했던 모양이다. 그건 결혼한 뒤 '아이는 가지지 않느냐'고 주위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그녀가 대꾸하던 말이었는데, 그런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은 없었다. 물론 이상한 점은 있었다. 남편은 아이라는 존재를 그다지 마뜩찮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약간 의외라고 생각했다.

(21)의 첫 문장을 보면 '대답했던 모양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소설 전체를 아우르는 서술자인 '나', 네즈미이다. 문장을 보아선 남편도 그녀도 이 문장에서 '-ㄴ 모양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맨 마지막 문장에서 '처음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의외라고 생각한' 사람도 네즈미가 아닌 '그녀'이다. 문장 차원에서 분석해가며 시점이 변화한 것으로 분석하고자 하면 이 장면에서 시점은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나'로부터 '그녀'에게 전환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 앞 문장에서 이미 초점화자가 '그녀'로 변화해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첫 문장에서는 인용을 사용하였다. 직접 화법을 사용하여 따옴표 안에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시점이나 초점화자에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녀'와 '남편'이 장면에 도입되어 있다. 다음 문장에서 '그런 마음이 흔들릴 만한 일은 없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이미 초점화자가 '그녀'에게로 넘어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마음이란 여기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흔들릴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은 네즈미의 관찰에 의한 서술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진술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물론 이상한 점은 있었다.'와 같은 경우는 누구의 목소리인지 정확하게 확정지을 수가 없다. 그녀의 말을 듣고 네즈미가 서술한 것인지, 그녀가 진술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은 자유 간접 화법의 특징이기도 하다.

Gennete(1972)에 따르면 자유 간접 화법을 사용하면 자유 직접 화법과는 달리 서술자의 목소리와 초점화자의 목소리가 합쳐진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드디어 그녀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후 소설에서는 계속해서 그녀의 목소리와 네즈미의 목소리가 섞여서 서술된다.

참여자 시점에서는 비참여자 시점과는 달리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결코 초점화자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장치만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첫 문장에서의 '-ㄴ 모양이-'가 네즈미의 시점에서 서술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그 증거이다. 앞서 살펴본 소설의 서두 부분에서도 '-ㄹ 것이-'는 서술자인 네즈미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반면 소설에서 변화된 초점화자라고 할 수 있는 '그녀'를 위해서는 인식양태보다는 자유 간접화법을 더 자주 사용한다.

(22) 남편도 그런 결과를 상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남편과 자신 사이에 그어진 점선이, '우리는 아이를 낳아야만 해'라는 말이 염두에 둔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과연 자신이 그때 그런 남편을 어디까지 이해했는가였다. 개인의 것이든 집단의 것이든, 모든 역사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일들의 연속체를 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저마다 반드시 일어날 만한 일이었다는 증명서가 자동적으로 첨부된다. 아무리 봐도 그 증명서를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자신의 진실과 일어난 일의 진실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녀로서는 자신이 남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다.

이어지는 (22)에서는 네즈미와 그녀의 목소리가 완전히 뒤섞여버린다. 여전히 그녀를 지칭하는 대명사는 '그녀'인 가운데 두 가지 다른 대명사가 나타난다. 그것은 '자신'과 '나'이다. 문장의 흐름 상 '자신'은 모두 그녀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첫 문장의 '-ㄹ 것이-'는 남편에 대한 추측이므로 그녀의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인식양태 실현표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중요한 건 과연 자신이 그때 그런 남편을 어디까지 이해했는가였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그녀라는 대명사가 나타나

지 않으면서 마치 그녀의 목소리인 것처럼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 시점이나 초점화자를 나누는 데에는 인칭이 상당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은 네즈미의 말인지 그녀의 말인지 알 수 없는 또다시 목소리가 겹쳐 버린 문장이다. '모든 역사란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난 일들의 연속체를 뜻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문장의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흐름상 '그녀'의 자유 직접 화법에 의한 발화일 수도 있고, 네즈미에 의한 진술일 수도 있다. 문맥이나 어법적 요소를 동원한다 해도 누구의 말인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런 식의 문장은 가독성을 떨어뜨릴 정도의 수준까지 진행되어 버린다. 그러나 곧 다시 '그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이 글의 서술자가 '네즈미'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제시된 부분은 시선의 혼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인데, 소설이 전개되면서 이러한 정도의 혼란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피면 이 부분은 '그녀'가 네즈미에게 자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처음 이야기하는 부분에 해당된다. 그러한 내용상의 특징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두 사람의 심리적 혼란과 그에 대한 동조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혼란스러운 초점화자의 변동을 의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시점의 소설에서의 이러한 초점화자의 변동과 그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영토가 상당히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식양태 실현요소는 참여자 시점에서는 초점화자의 변동이나 자유 직접 화법 등에 의해서 발현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술자의 인식양태를 드러내는 본래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나타난다. 이 때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역할을 판단하고, 이 인식양태가 작중 인물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은 물론이고 문맥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인식양태 실현요소 자체로는 아무 것도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참여자 시점에서 인식양태 실현요소는 초점화 즉 '서술법(mood)'의 표지라기보다는 '음성(Voice)'의 표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소설 내에 존재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작중인물로의 초점화자 변화

를 상징하는 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참여자 시점에서는 이미 기존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만약 초점화자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여도 그것에 따른 인식양태의 사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다양한 자유 간접 화법 등과 함께 사용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때문에 참여자 시점에서 인식양태 실현요소를 식별할 때에는 다양한 주변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3.2.3. 비참여자 시점 소설의 질적 연구

비참여자 시점의 질적 연구에서 다룰 작품은 최성각의 「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경우 비참여자 시점을 하고 있으나 초점화자는 꾸준히 '그'에게 맞추어져 있는 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치 참여자 시점처럼 엄격한 정보의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초점화자인 '그'의 시선을 바싹 따라가듯이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미 전형적인 비참여자 시점 소설의 인식양태 실현요소 출현에 대한 분석은 앞선 3.1.3절에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 이 절에서는 전형적인 인식양태 실현요소의 질적 연구보다는 특정한 상황에서 비참여자 시점 소설이 인식양태 실현요소를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3) 그가 유락산을 찾기 시작한 것은 한참 전부터의 일이지만 그 일이 일어난 것은 입추를 얼마 앞두고 연일 가마솥 같은 불볕더위가 계속되던 즈음이었다. 그 즈음을 제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u>진부한 방법이긴 하지만</u> 그 즈음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는 게 <u>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u>

소설의 시작부분은 유락산 약수터에 물을 뜨러 다니면서 겪게 된 일의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장면의 뒷문장에서 '-ㄹ 것이-'를 사용하고 있다. 보통이라면 이 경우 내적초점화로의 변조, 즉 작중인물인 '그'에게로 초

점화자가 변경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장을 읽어보면 내적초점화로 '그'가 초점화자가 되었다기보다는 마치 서술자가 실체화 된 듯한 문맥으로 읽힌다. 그 즈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그'가 아니라 비참여자 시점의 서술자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한 효과의 원인은 애초부터 서술자가 초점화자인 '그'에 매우 가까이 다가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둘의 사이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은 다음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24) 사실 그와 유사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한참 전부터였다. 어느 시대나 당대에 대한 말세적 불안과 확신은 풍성하게 넘쳤던 일이고, 미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부적처럼 뒤따랐**던 일이므로**, 게다가 언제나 거짓 예언자나 허풍선이들이란 **있게 마련이므로**, 그런 이야기는 아주 쉽게 묵살되기 **딱 알맞았다**.

(24)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초점화자 '그'에 맞추어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를 들은 것'은 당연히 서술자가 아니라 초점화자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판단]의 문장들이다. 판단 역시 비참여자 서술자의 특성과는 맞지 않는 인지 과정이지만 이 글에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장들을 서술하고 있다. 분명 '그'라는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참여자 시점에 더 가까운 위치에 서술자와 초점화자가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 소설은 '그'를 전부 '나'로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문체를 갖고 있다. 다음은 실제로 '그'를 '나'로 바꾸어 본 소설의 한 장면이다.

(25) 가. **그**는 그런 거친 청년의 발동작에 그때까지도 열심히 쌀을 냄비에 주워 담는 노인의 손이 밟힐까 봐 조마조마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찌르륵, 찌르륵 하는 새소리가 들렸다. 발로 쌀알을 한쪽 옆으로 썩썩 밀어젖히던 청년은 빈 냄비를 들고 노인을 한 번 더 날카롭게 쏘아본 뒤, 가느다란 침을 찍, 뱉으며 텐트가 쳐져 있는 숲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청년의 입에서 가느다랗게 나오는 하얀 침이 꼭 파충류의 혓바닥 같다고 생각했다.

나. **나**는 그런 거친 청년의 발동작에 그때까지도 열심히 쌀을 냄비에 주워 담는 노인의 손이 밟힐까 봐 조마조마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찌르륵, 찌르륵 하는 새소리가

들렸다. 발로 쌀알을 한쪽 옆으로 썩썩 밀어젖히던 청년은 빈 냄비를 들고 노인을 한 번 더 날카롭게 쏘아본 뒤, 가느다란 침을 찍, 뱉으며 텐트가 쳐져 있는 숲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청년의 입에서 가느다랗게 나오는 하얀 침이 꼭 파충류의 혓바닥 같다고 생각했다.

소설의 문맥이나 내용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4가)와 (24나)를 비교하면 없으나 문체의 효과 측면에서 차이는 발견할 수 있다. '그'라는 대명사를 서술함으로써, 초점화자인 '그'와 서술자를 분리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서술 자체는 초점화자의 눈높이에서 하게 된다면 이것은 텍스트 내에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요소가 된다. 초점화자와 서술자가 일치하는 텍스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어긋남', '긴장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26) 그로서는 그 물맛이 그것 같았다. 물을 마시고 나서야 발견한 것이지만 그들 몇 사람은 모두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

(26)의 첫 번째 문장의 주어 '그'는 서술어로 '그것 같다고 느꼈다' 정도를 원할 것이다. 반면 '그것 같았다'는 자신의 주어로 '그'보다는 '나'를 원할 것이다. 한 문장 내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시점과 초점화자의 괴리는 이 소설만의 독특한 문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3. 시점에 따른 인식양태 부사

지금까지 인식양태의 빈도는 우언적 구성과 어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어휘적 인식양태를 대표하여 인식양태 부사를 살펴보고 그 빈도에 따른 차이를 관찰하고자 한다.

### 3.3.1. 소설 시점에 따른 인식양태 부사의 출현 빈도

기존 연구[15]에서 인식양태의 의미를 가진 부사로 연구된 부사 목록 중, 이 연구의

15) 기존 연구는 박정은(2010), 서정수(2005), 손남익(1995) 등을 참조하였다.

코퍼스에서 최소 10회 이상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빈도 측정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양태부사의 빈도>

| | 참여자 | 비참여자 |
|---|---|---|
| 아마 | 36 | 36 |
| 아마도 | 15 | 33 |
| 사실 | 16 | 20 |
| 분명히 | 21 | 9 |
| 분명 | 13 | 21 |
| 어쩌면 | 25 | 66 |
| 정말 | 50 | 31 |
| 합 | 182 | 220 |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빈도가 높은 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아마', '어쩌면'과 같은 개연성이나 가능성과 관련된 인식양태 부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는 반면, 참여자 시점에서는 '정말'과 같은 점이다.

총 합을 살펴보면 비참여자 시점의 부사가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 역시 '참여자 시점에서 더 높은 빈도로 인식양태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가정과 맞지 않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부사가 낮은 빈도를 보인다. 때문에 총 빈도 역시 낮다. 앞서 살펴 본 우언적 구성이나 선어말어미에 의한 인식양태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차이가 더 확실하다. 또한 각 요소들 중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요소들은 많지 않다.

### 3.3.2. 인식양태 부사의 개별 분석

이 장에서는 개별 양태부사의 의미와 빈도 양상을 살펴보아 어떤 양태부사가 소설 시점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어쩌면

'어쩌면'은 추측(개연이나 가능성)의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ㄴ 지도 모르-'와 공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ㄹ 것 같-' 등과도 함께 쓰인다.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전혀 없는 문장에서 홀로 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우언적 구성이나 동사 등과 함께 쓰인다.

참여자 시점보다는 비참여자 시점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인다. 다만 현재형의 문장에서 '어쩌면'이 쓰인 것은 참여자 시점에서만 나타난다. 실제 소설 안에서 등장한 '어쩌면'이 나타난 문장 예문은 다음과 같다.

(27) 참여자

가. 어쩌면 내가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하자마자 그렇게 앉아서 울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나. 어쩌면 그녀는 나의 이런 성격을 미리 알아채고 나에게만 자신을 말했던 건지도 모른다.

다. 어쩌면 겨드랑이에 날개라도 자라 허공을 떠올라야 할 것 같았습니다.

라. 어쩌면 내가 지금껏 만났던 여자들은 바로 그 여인의 충실한 대리역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28) 비참여자

가. 어쩌면 그와 함께 세상 속을 헤엄쳐 간다면 인생자체가 단순해질 것 같았고 삶 자체가 몇 개의 선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 어쩌면 율도국은 세상의 어느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이어야 하고 세계지도의 어느 곳에도 실존하지 않아야 한다.

다. 어쩌면 혜화동 시절이 그처럼 화려하게 기억되는  것도 하계에서의 그 고통스럽던 나날 때문인지 모를 일이었다.

라. 어쩌면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2) 아마·아마도

'아마' 혹은 '아마도'의 경우 추측(개연성이나 가능성)을 나타내는 인식양태 부사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 모두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데 상대적으로 비참여자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29) 참여자

가. 아마 그녀가 자살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나. 아마 저는 도로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다. 아마 다른 금은방에 들렀다 온 모양이었다.
라. 아마 그런 것들이리라, 그녀로 하여금 사람을 사귀지 못하게 했던 것들은.

(30) 비참여자

가. 아마 그 청년이 투신하면서 옥상 위에서 던졌을, 그런 뒤에 어느 바람인가가 실어다 주었을 이라는 유인물이 날아 왔다.
나. 아마 그쯤에서 돌아섰을 것이다.
다. 아마 에디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라. 아마 우연히 만나서 기쁨이 더 컸으리라.

3) 정말

'정말'의 경우 확신을 나타내는 인식양태 부사이다. 참여자 시점에서 더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31) 참여자

가. 정말 건조한 목소리였다.
나. 정말 선녀였던 것 같다.
다. 정말 이 나이 먹고서도 아득바득 돈 벌어보자고 가게 붙잡고 사글세 놓고 있는 건가.

(32) 비참여자

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고향이었다.
나. 정말 살기가 나아졌는지 모를 일이었다.
다. 정말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은 얼굴이었다.

'정말'은 다른 인식양태 실현요소와 공기하기도 하는데, 확신이 아닌 개연성을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우언적 구성과 공기한다. 이 경우 문장 전체의 의미는 개연성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하지만 개연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해도 '정말' 대신 '아마도'와 공기할 때와는 또 문장의 확실성의 정도가 다르다.

(33) 가. 정말 보았다.
나. 정말 본 것 같다.
다. 아마도 본 것 같다.

(33가)와 (33다)에 비해 (33나)는 두 문장의 중간지대쯤에 위치해 있다는 느낌을 준다. 100%의 확신이 아닌 이상 범주상으로는 개연성으로 취급해야 하겠지만 '아마도'가 공기하는 상황보다는 더 확신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말'과 공기하는 우언적 구성 중 다음과 같은 예문의 우언적 구성은 인식양태가 아닌 비유 표현 정도로 해석된다.

(34) 가. 정말 산타 할아버지가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나타나 선물을 나누어줄 것 같았다.
나. 정말 약수터에 오래 있다가는 누구나 눈이 뻘게질 것 같았다.

4) 분명 · 분명히
'분명 · 분명히' 역시 확신을 나타내는 양태부사이다. 이들 양태부사 역시 개연성을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우언적 구성과 함께 공기할 수 있다. '정말'과 마찬가지로 다른 인식양태의 우언적 구성과 공기할 경우 확실성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개연성의 의미가 된다. 하지만 '아마도'와 같은 부사와 결합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높은 정도의 개

연성이라고 해석된다.

(35) 참여자

가. 분명 그럴 겁니다.

나. 분명 거기에 포함되리라.

다. 분명히 아무도 본 일이 없었다는 대답을 할 것 같아서였다.

(36) 비참여자

가. 분명 그저 또 하나의 비행기 추락사고였었다.

나.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명훈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지금까지 개별 인식양태 부사의 의미와 공기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기할만한 점은 확실함을 나타내는 부사 '정말', '분명', '분명히'와 같은 경우에 개연성을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우언적 구성과 만나면 문장 전체는 확실성이 아닌 개연성의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상당히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정말'과 같은 확실성을 나타내는 부사와 '-ㄹ 것 같-'과 같은 개연성을 나타내는 우언적 구성이 함께 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되고 있음이 독특하다.

이러한 모순된 문장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면 언뜻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37) 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나. [정말 선녀였]던 것 같다.

즉, '분명히'나 '정말'과 같은 부사가 전체 문장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안긴 절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면 우언적 구성과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다음과 같이 어미를 사용한 문장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38) 가. 분명히 그 녀석이 범인이겠는데…….
나. 정말 지금쯤이면 도착했겠다.

우언적 구성과는 달리 어미 '-겠-'의 경우는 중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앞선 설명처럼 다른 절로 보기 힘들다. 그러나 (38)의 예문들 역시 어색함 없이 사용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인식양태 요소가 동시에 사용되는 이러한 문장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 3.4. 요약

3장에서는 실제 소설 자료를 관찰하여 시점에 따른 인식양태 요소의 빈도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분석하였다. 시점에 대한 기본 논의를 토대로 참여자 시점에서는 인식양태가 높은 빈도로 나오고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인식양태가 낮은 빈도로 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실제 결과는 비참여자 시점에서도 상당히 높은 빈도로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등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예상과 다른 결과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문맥을 확인하여 어떠한 동기에 의해 인식양태 출현요소가 등장하였는지를 다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초점화자의 변동에 의하여 비참여자 시점에서도 인식양태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 질적 연구를 통하여 실제 텍스트 내에서 인식양태와 시점이 맺는 다양한 관계를 많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식양태와 시점의 상관관계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설 내에 사용된 인식양태 부사들을 살펴보았다. 시점별로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인식양태의 어미나 우언적 구성과의 공기관계에서 흥미로운 특징을 보였다.

# 4. 소설의 시점과 종결어미의 상관관계

이 장에서는 소설의 시점별 종결어미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정확히는 종결어미가 나타내는 상대높임법과 문장의 종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개별적인 종결어미의 등장보다는 각 시점별로 얼마나 많은, 또 얼마나 다양한 종결어미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좀 더 집중하여 살피고자 한다.

## 4.1. 소설 시점별 종결어미의 계량적 연구

### 4.1.1. 소설 시점별 종결어미의 출현 빈도 결과

두 시점 모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결어미는 '－다'이다.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자료에서 '－다'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차이를 살피고 그 특징을 보고자 한다.

결과를 논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하고 연구 범주를 확정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다음은 이 연구에서 자료를 가공하고 연구 범주를 확정한 기준이다.

(39) 가. 명사, 감탄사 등 어미가 아닌 어휘로 끝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전성어미가 사용된 경우도 제외한다.
다. 연결어미라 할지라도 종결부에 사용되었으면 일단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목록에 포함시킨다.
라. 같은 종결어미라도 문장부호가 다를 경우 다르게 처리한다. 또한 방언형도 다른 형태로 처리한다.
마. 일반적으로 보조사로 분류되는 '요'의 경우도 함께 다룬다. '요'를 제외한 조사로 끝난 문장은 모두 제외한다.

우선적으로 명사나 감탄사 등 어미가 아닌 어휘로 문장이 끝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예는 '어머니.', '아뿔싸!'와 같은 경우가 있었다.

어미로 끝난 경우는 다시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전성어미, 연결어미, 그리고 종결어미. 이 중에서 전성어미 특히 명사형 어미로 문장이 종결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지만 이러한 예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전성어미와 달리 연결어미의 경우는 종결어미와 같이 처리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적으로 종결어미로 간주되어 온 것들이 아닌 문법화 등을 이유로 종결어미처럼 쓰이고 있는 연결어미들이 있는데, 어디까지를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일시적인 쓰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즉, 문법화의 정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둘째, 연결어미라 할지라도 일단 문장의 종결부에 사용되었다면 종결어미로서의 기능이 임시적이라 할지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종결어미를 관찰하고자 하는 까닭은 종결어미가 수행하는 두 가지 기능, 즉 상대높임법의 실현과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유현경(2003)에 따르면 종결어미처럼 사용된 연결어미는 상대높임법 체계에서는 반말체 등급으로 판단되며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연결어미라도 텍스트 내에서 종결어미의 위치에 나타나고 종결어미의 역할을 일부 수행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로 끝나는 문장도 상당수 보였다. 보조사로 분류되곤 하는 ‘요’ 역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요’를 제외한 나머지 조사류(‘을/를’, ‘은/는’ 등)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요’의 포함은 ‘해요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 외의 조사의 출현은 도치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결어미와는 달리 종결어미의 기능을 한시적이나마 수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아 제외시켰다.

마지막으로 같은 종결어미라 해도 문장 부호가 다르다면 다른 항목으로 다루었는데 이것은 특히 반말체에서는 종결어미보다는 문장 부호 등을 통해 문장 유형이 나뉘는 것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갖고 검토했을 때 실제 나타난 자료를 제시하고,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6 - 참여자 시점 종결어미>

| 종결어미 | 빈도 | 종결어미 | 빈도 |
|---|---|---|---|
| -ㅂ니다. | 2020 | 다만. | 3 |
| 요. | 585 | 자. | 3 |
| ㄴ가. | 188 | 도록. | 3 |
| ㄹ까. | 79 | 거든 | 3 |
| 니까 | 71 | 여? | 3 |
| 지. | 61 | 어! | 3 |
| 나. | 43 | 나? | 3 |
| 가? | 39 | 여. | 3 |
| 다니. | 26 | 구나! | 3 |
| ㄹ까? | 26 | 래? | 3 |
| 아/어. | 26 | 면? | 3 |
| 야. | 18 | 라니? | 2 |
| 라. | 17 | 비. | 2 |
| 고. | 15 | 아/어! | 2 |
| 리라 | 13 | 유. | 2 |
| ㄴ데. | 13 | 니? | 1 |
| 라고. | 9 | 야! | 1 |
| 서. | 9 | 구. | 1 |
| 네. | 9 | 유? | 1 |
| 요? | 9 | 야? | 1 |
| 지만. | 8 | 자! | 1 |
| 며. | 8 | 쥬? | 1 |
| 냐. | 8 | 랴? | 1 |
| 구나. | 7 | 군. | 1 |
| 게. | 7 | 면. | 1 |
| 거나 | 6 | 니까! | 1 |
| 다고. | 5 | 녀! | 1 |
| 면서 | 5 | 게? | 1 |
| 라니! | 5 | 겨? | 1 |
| ㄴ시오. | 5 | 껴. | 1 |
| 지? | 5 | 셔. | 1 |

| | | | |
|---|---|---|---|
| 어? | 5 | 소. | 1 |
| 냐고. | 4 | 소? | 1 |
| 죠. | 4 | 제. | 1 |
| 랴. | 4 | 죠? | 1 |
| 라! | 4 | 누. | 1 |
| 냐? | 4 | 든! | 1 |
| 니. | 3 | | |
| 으므로 | 3 | 총합 | 3439 |

<표7 - 비참여자 시점 종결어미>

| 종결어미 | 빈도 | 종결어미 | 빈도 |
|---|---|---|---|
| ㄹ까. | 72 | 리니. | 3 |
| ㄴ가. | 71 | 니. | 3 |
| ㄹ까? | 65 | 구. | 3 |
| -ㅂ니다. | 46 | 라면. | 3 |
| 지. | 46 | 데. | 3 |
| 야. | 43 | 듯이. | 2 |
| 어. | 43 | 해? | 2 |
| 고. | 40 | 아? | 2 |
| 요. | 34 | 라! | 2 |
| 니까. | 29 | 라? | 2 |
| 라. | 24 | 어? | 2 |
| 리라 | 12 | 냐고? | 2 |
| 아. | 11 | 소. | 2 |
| 요? | 10 | 으니. | 1 |
| 지? | 9 | 리. | 1 |
| 구나. | 6 | 게. | 1 |
| 서. | 7 | 면. | 1 |
| -ㅂ시오. | 7 | 구? | 1 |
| 자. | 6 | 며 | 1 |
| 니? | 6 | 도록. | 1 |
| 랴. | 6 | 죠? | 1 |
| 여. | 5 | 래? | 1 |
| 지만. | 5 | 지! | 1 |

| | | | |
|---|---|---|---|
| 가? | 4 | 야? | 1 |
| 군. | 4 | 나? | 1 |
| 죠. | 4 | 어! | 1 |
| 라니. | 3 | 총 | 662 |

이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어미의 결과를 보면 인식양태의 결과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양태의 경우, 전체 빈도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던 반면 종결어미의 경우 빈도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먼저 전체 빈도에서 차이가 난다. '-다'를 제외한 종결어미의 총 빈도가 참여자 시점일 경우 3439회,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662회로 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 다음으로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난 종결어미의 종류의 차이이다. 참여자는 76종, 비참여자는 53종이다. 전체 빈도만큼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지만, 어미라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되는 구성요소가 한정된 문법 범주임을 고려했을 때 20여 종 넘는 차이가 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차이를 보자면 먼저 '-ㅂ니다'와 '요'의 빈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이 둘은 각각 합쇼체와 해요체에 속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해라체의 '-다'와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이 둘은 참여자 시점에서는 활발하게 사용되지만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다른 종결어미와 비교해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ㄹ까'와 '-ㄴ가'가 가장 자주 나타나는데, 둘 다 참여자 시점보다 낮은 빈도로 나타난다. 즉, 어떤 것은 참여자 시점에, 어떤 것은 비참여자 시점에 많이 나타나는 엇갈리는 형태가 아니라 참여자 시점과 비교하여 비참여자 시점이 꾸준하게 낮은 빈도 혹은 비슷한 정도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참여자 시점의 경우 방언형의 문장종결형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여'나 '-유'와 같은 어미는 비참여자 시점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방언형뿐만이 아니라 문장 부호 역시 참여자 시점에서 훨씬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 또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특징 중 하나는 종결어미의 종류는 굉장히 많지만 그들 중 빈도가 10회가 넘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참여자 시점의 경우 16개의 종결어미가,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13개의 종결어미가 빈도 10 이상이다. 나머지 종결어미들 중에서도 대다수가 1~2회 정도의 빈도를 가진다. 실제 유의미한 정도로 사용되는 어미의 수는 양 시점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어지는 장에서는 소설 시점과 종결어미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 4.1.2. 소설 시점과 종결어미의 상관관계

이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자료에서 드러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시점간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상관관계에 대해 논할 것이다.

드러난 바와 같이 두 시점 간에는 종결어미의 빈도의 압도적인 차이가 있으며, 나타나는 종류의 개수 역사 차이를 보인다. 이는 초점화자가 변조를 통해 변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 사항이 있는 인식양태에 비해 종결어미는 초점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설 내에서 변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차이는 고영근·남기심(1993)에 의해 설명한 '상관적 장면'과 '단독적 장면'라는 두 발화상황의 구별로 설명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실제로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상황을 상관적 장면이라고 하며 소설의 지문이나 기사문과 같이 청자를 설정할 수 없고 자기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상황은 단독적 장면이라고 하여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보면 참여자 시점에서는 '-ㅂ니다'와 같은 상대높임법 체계에서 '-다'와 다른 등급에 속하는 어미가 비참여자 시점에서만 2020회 등장하고 있다. '요' 역시 해요체로 '-다'의 해라체와는 등급이 다른데 비참여자 시점에서 585회 등장한다.

이를 보면 최소한 참여자 시점은 엄밀한 의미에서 단독적 장면이라 하기 힘들어 보인다. 반면 비참여자 시점은 참여자 시점에 비하면 훨씬 단독적 장면에 가까운 특

징을 보인다. '-ㅂ니다'나 '요' 등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참여자 시점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빈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 고영근·남기심(1993)에서는 단독적 장면과 상관적 장면을 청자 확정의 유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들었다. 그러나 청자에 앞서 실재하는 화자의 유무 역시 중요한 기준으로 보인다. 즉 참여자 시점에는 구체적인 인물로 존재하는 화자가 비록 소설 내에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화자가 없다.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상대높임법은 청자와 화자 사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화자가 없으므로 청자와의 사이 역시 결정지을 수 없다. 반면 똑같이 확정지을 수 없는 청자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소설의 지문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인물 서술자, 즉 참여자 시점의 서술자라면 훨씬 자유롭게 종결어미를 사용할 수 있다. 유의할 것은 이것이 소설 한 작품 내에서 다양한 등급의 서술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소설에서 각자 다양한 인물을 서술자로 선택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아무리 다양한 작가가 다양하게 서술한다 하여도 일률적으로 비슷한 종결어미를 사용하게 된다.

비참여자 시점뿐만 아니라 다른 단독적 장면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신문 기사 역시 청자를 확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청자뿐만 아니라 화자 역시 비참여자 시점의 소설처럼 확정지을 수 없다. 기사는 기자의 사견을 드러내지 못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체적인 화자가 없는 것처럼 작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기사에서는 대담과 같은 형식을 제외하고는 상대높임법 체계가 저지된다.[16] 물론 구체적이고 실체가 있는 화자의 유무가 단독적 장면의 독특한 문장 사용을 결정짓는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을 지적하고 싶다.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 간의 종결어미의 차이는 앞서 살펴본 초점화의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초점화자와 서술자가 분리되면 초점화자는 자유롭게 변화할

---

16) 한겨레신문 2003년 기사: 사회(BRAE0206) 68458어절에서 '-ㅂ니다'는 단 한 차례도 검색되지 않으며 '요'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 있지만 서술자는 고정된다. 시점을 소설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바꾸는 경우는 없지 않지만, 몇 번이나 바꿔가며 서술하는 것은 작정하고 독특한 문체 효과를 내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 때문에 초점화는 한 소설 내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며, 그로 인하여 비참여자 시점에도 많은 인식양태 실현요소가 등장하였다. 그에 반해 종결어미는 초점화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비참여자 시점 소설에서 다양한 종결어미가 사용되는 것이 저지되는 것이다.

앞서 인식양태에서의 초점화의 변조 현상을 설명했음에도 여전히 "왜 시점의 변화(서술자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 초점화자의 변화인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면 비참여자 시점에서 보이는 종결어미의 사용을 통해 이러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말 비참여자 시점에서 서술자가 이야기 밖의 서술자에서 이야기 내부의 인물로 변화했다면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참여자 시점에서 다양한 종결어미가 나오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등장한 다양한 종결어미의 예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ㅂ니다'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40) 가. 사거리에 점포를 얻어 양장점을 차려주셨습니다.
나. 여행중이신 것 같아 편지를 드립니다.
다. 그대의 행복을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께 빌겠습니다. 안녕. -그대의 효철
라. 어떠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40가)~(40다)의 경우 모두 소설 안에 삽입된 편지글이다. 즉 애초에 소설의 서술부가 아닌 것이다. (40라)의 경우 자유 직접 화법으로 소설 내부에 인물의 목소리가 그대로 삽입된 일종의 인용이다. 다음으로 '요'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41)가. 뭐, 듣기 좋은 비유는 아니군요. 그가 선배에게 대꾸했다.
나. 시기만 다를 뿐 우리는 모두 파견 근무 중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담당자는 입을 다물었다.

다. 그 말처럼 저 역시 제 손으로 제 삶을 개척해 나가겠어요.

(41가), (41나)는 자유 직접 화법이다. 각각 '선배'와 '담당자'의 목소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41다)의 경우는 소설 내부에 삽입된 편지글이다. 이런 식으로 예외적으로 등장하는 종결어미의 경우 작중 인물의 말을 그대로 서술한 자유간접화법이나 우리의 논의와는 상관없는 삽입된 편지글과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의문형 종결어미들의 사용에서 발견된다. 사실 비참여자 시점 서술자의 특성을 생각하면, 그리고 청자 역할을 하는 독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의문형의 사용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설령 특정하지 않는 대상을 상대로 질문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의문형과 비슷하게 상대를 특정하고 말하는 것이 보통인 청유형이나 명령형 종결어미는 이렇게 높은 빈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 또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를 제외한 종결어미 중 '-ㄹ까'나 '-ㄴ가'의 비중이 매우 높고 빈도순 1, 2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그 중 문제가 될 만한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42)가. 큰언니의 허영인가, 아니면 그녀를 더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고자 하는 조롱인가.

나.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플라스틱 제품 등속의 석유화학 제품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 K는 그때 왠지 마지막 좌절처럼 힘이 빠졌다. 그의 말은 얼마나 구절구절 옳은가.

(42)의 문제는 앞서 살펴본 다른 예외적인 종결어미보다 복잡하다. 눈에 띄게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그대로 인용되었다고 보기에는 뚜렷한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의문문의 형식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독백에 가까운 화행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질문을 위한 의문문이었다면 자유 직접 화법을 통해 인물의 말이 인용된 것인지 아닌지가 쉽게 판정되었을 것이다. 작중 인물의 말이라면 같은 작중 인물에게 하는 질문이었을 것이고,

만에 하나 서술자의 질문이라면 작중 인물이라기보다는 독자에게 하는 질문일 것이다. 그러나 독백이라면 등장인물도 가능하고 서술자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질문의 화행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 강조와 같은 수사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본다면 서술자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실제 소설을 보면 이러한 경우의 예문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문맥을 따져가며 읽었을 때 상당수가 결국 자유 직접 화법인 쪽으로 보이지만 어떠한 예는 마지막까지 확신을 하기 힘든 문장들도 있다. 이들을 수사적인 의문문 형식의 평서문으로 본다면 의문문의 문장이 청유문이나 명령문에 비해 많은 현상에 나름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청유문이나 명령문은 본래의 화행이 아닌 수사적인 기능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은 활발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수사적인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비참여자 시점 내에서 의문문이 다른 유형의 문장에 비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4.2. 소설 시점별 종결어미의 질적 연구

### 4.2.1 자료의 선정 및 분석 방법

3.2.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연수의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를 참여자 시점의 소설로, 비참여자 시점에서는 최성각의「약사여래는 오지 않는다」를 자료로 한다. 동일한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자료의 균질함을 유지하고 또 인식양식때와의 차이점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자료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방침, 즉 문맥을 충분히 제공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 역시 동일하다. 종결어미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며 함께 등장하는 다른 요소들, 지시표현, 화행 등도 함께 살핀다. 여기에 더해 ‘자유 직접 화법’과 같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한 종결어미의 사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참여자 시점에서도 서술자의 변화에 따른 종결어미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해당 텍스트의 충분한 맥락 속에서 풀어나갈 것이다.

### 4.2.2. 참여자 시점 소설의 분석

이 소설에서 에서 가장 먼저 '-다'가 아닌 종결어미가 나오는 장면은 다음 장면이다.

(42) 나는 거실에 서서 저뭇한 잿빛 뒤뜰이 내다보이는 아치형 통로 주변을 바라보다가 그 한쪽에 달달거리는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이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일까? 슬픔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어두워진 뒤부터 울기 시작했다면 이미 밝혀놓은 불을 끌 겨를은 없었을 테니까 실내가 그처럼 어둑하진 않았을 것이다.

의문형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네즈미의 질문이다. 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다.

(44) 도대체 당신은 어떤 일을 상상하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한 것인가요? 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남편에게 그렇게 묻고 싶었다.

이 역시 '그녀'가 남편에게 묻고 싶었던 말을 그대로 소설의 서술부에 삽입한 것이다. 의문문이지만 (45)의 네즈미의 질문과는 달리 그녀의 질문이 자유 직접 화법으로 삽입된 것이다.

(46) 어쨌든 그녀는 말귀가 무디게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면서 남편과 그녀 사이에 조금씩, 희미한 점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점선이란 가상의 실선을 염두에 두고 그어지는 선이다. 남편은 과연 어떤 실선을 상상했던 것일까?

종결어미 '-ㄹ까'가 등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술자인 나(네즈미)의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녀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의 생각으로 읽을 수도 있다. 인식양태를 살펴볼 때와 동일하게, '그녀'와 '나'의 목소리가 섞이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7) 도로를 따라 심어놓은 벚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조금만, 조금만 더 있다가. 남편 쪽을 바라보지는 않고 그렇게 대답하는데 바람 때문이라기에는 너무 심하게 벚나무 가지가 흔들거리는 모습이 그녀 눈에 들어왔다. 왜 그런가 하고 고개를 빼고 올려다봤더니 작을 새가 가지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벚꽃들을 온통 뒤흔들어놓았네. 아무리 머릿속을 헤집어봐도 자신의 말에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저 그런 아렴풋한 생각뿐이었다. 왜 하필 그때 작은 새가 벚나무 가지를 흔들었나? 아무리 기억해보려고 해도 남편을 완전히 이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나? 그렇게 말하다가 그녀는 몸을 수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그건 새였을까, 네즈미? 진짜 새였을까? 나는 손바닥으로 대나무 마디처럼 등뼈가 툭 튀어나온 그녀의 등을 어루만졌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목소리는 '그녀'의 목소리이지만 조금 더 다양한 층위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그녀의 목소리와 현재의 그녀의 목소리가 동시에 뒤섞여 서술되고 있다. 이런 방식을 취함으로써 소설은 '나'와 '네즈미'의 목소리를 섞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그녀'와 '과거의 그녀'의 목소리를 섞으면서 소설을 진행한다.

다음은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두 인물의 목소리를 마치 대화처럼 병치하고 있다.

(48) 돌아서니 검은 비바람이 내 얼굴로 몰아친다.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지?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거, 맞지? 기억 속 어딘가에서 내가 소리친다. 맞아. 점점 흐릿해지는 낯빛으로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다. 더없이 깊은 밤과 꿈결처럼 아득한 어둠속으로 나는 떠난다.

이러한 서술은 마치 소설 내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대화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내용을 보면 '나'의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그녀'의 목소리를 서술한 것일 뿐이다. 자유 간접 화법으로 이 정도의 서술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 내부에서 초점화자의 변조를 통해 다양한 효과를 얻었던 것에 비해, 종결어미의 변화는 이 소설에서는 대부분 자유 직접 화법에 의한 인용 정도로만 단조롭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4.2.3. 비참여자 시점 소설의 분석

이 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수사적 목적의 의문문인지 작중 화자의 생각을 자유 직접 화법으로 인용한 것인지 구별이 쉽지 않은 대목이 많다. 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장면을 들 수 있다.

(49) 어떤 전투경찰은 거리에서 멀쩡한 행인을 검문한 뒤 그의 통장을 슬쩍해서 거금의 돈을 꺼냈다가 잡혀 머리를 푹 숙인 모습이 TV에 비쳐지기도 했고...... 그럴 즈음이었다. 그뿐인가. 그 즈음은 하늘에서 내린 너무 많은 비와 허공에서 불어닥친 너무 세찬 바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들이 땅에다 기울인 너무 많은 땀과 정성들이 일시에 떠내려가버렸고, 또 어떤 비행기는 남의 나라 공항에 내리려다 비행기가 반동강이 나는 바람에 숱한 사람들이 불에 타 형체도 없이 흩어졌다가 태극기에 싸인 관에 간신히 추슬러져 통곡 속에 돌아오기도 했고, 길바닥에서는 하루도 쉬지 않고 교통사고로 허이연 골이 터져 죽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고'의 경우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쓰였다기보다는 마치 말 끝을 흐리는 듯한 어조로 사용되었으므로 깊이 논하지 않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뿐인가' 인데 이것이 서술자의 목소리인지 작중 인물인 '그'의 목소리인지 아무리 문맥을 보아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뿐인가'의 경우 일종의 관용구처럼 쓰인다고 볼 수도 있으니 더더욱 판단이 쉽지 않다.

(50) 그런 생각의 뿌리는 어쩌면 많은 시간을 들여 분석해도 잘 분석되지 않을 열등감이거나, 혹은 그가 무슨 편에 소속된 걸로 간주되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하지만 또 다른 종류의 힘에의 의지이거나, 자기 방기에 가까운 것임을 막연히 그는 느끼고 있었다. 아니면 외로움이든가. 회의주의자라기보다는 가슴이 뜨거운 허무주의자에 가까운 그가 늘 이런 생각에 골몰하기보다는 아주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일 따름이다.

이 예문에서도 '아니면 외로움이든가.'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전, 후로는 서술자의 서술이기 때문에 연속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서술자의 목소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의미를 보면 등장인물인 '그'가 문득 던지는 목소리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혼란이 오는 것은, 소설 전반적으로 서술자의 시선이 '그'의 시선과 동일한 높이로 마치 참여자 시점의 서술처럼 가까이에서 서술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51) 약수터를 찾는 일은 그러나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소롯길 양편으로 무성하게 숲이 우거진 산의 초입에 들어서자 저 멀리로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였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은 몰랐다. 모두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뿌연 오줌이 나오고 목덜미에 식은땀이 나고 늘 피곤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유락산 초입의 약수터에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했다. 더러 맨손체조를 하거나 헛 둘 헛 둘 하면서 골똘한 표정으로 뛰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지만 아침에 산을 찾는 사람들은 거의 물 때문에 온 사람들 같았다.

이 예문의 '보였으니까'는 거의 서술자의 목소리로 보인다. '-니까'의 경우 후행절이 생략되었거나 선행 문장과 도치되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목소리라는 해석에 더욱 힘이 실린다.

(52) 그런 기사를 보면서 그가 떠올린 것은 희안하게도, 전에 줄기차게 일어나던 일이었지만 근래에 떠들썩한 인신매매 사건들이었다. 적발된 업체들의 담당 임원이 적발 관리에서 손을 비비며 거짓 웃음을 얼굴에 가득 띠며 능란하게 대응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그 후의 일은, 이 나라에서 나이 서른을 무사히 넘긴 사람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짐작되는 일이기도 했다. 그 관리는 또 업자들에게 받은 봉투를 쪼개 그 위의 관리에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다는 것은 중학생도 다 아는 일, 한강 남쪽의 그 엄청난, 더러 칼부림도 나는 고급(=퇴폐) 술집들은 누가 이용하는가. 자기 월급으로 그 술집에 가서 계산을 하는 남자들을 용서할, 그 남자들의 아내들이 과연 이 땅에 있을

것인가. 있다면 그런 아내들은 몇이나 될까. 감옥에 가서 참으로 오래오래 한복(죄수들이 한복을 입는 게 그는 사실 늘 불만이긴 했다)을 입어 마땅할 부패한 관리들이 더러 재수 없게 징계를 당해 동료 관리들에게 동정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겁없는 부패한 관리들을 꼬박꼬박 세금을 내 거둬 먹이며 허용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바로 내 친구이고, 내 마누라이고, 내 선배이고, 내 후배이고, 문방구를 하는 우리 옆집 아저씨이고……, 그리고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때 신문을 홱 접었었다.

예문 (52)에서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거의 겹치게 느낄 정도로 거리감 없이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 문장에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라는 서술로 비로소 '그'의 생각을 기술한 부분임을 눈치 챌 수 있지만, 서술자의 서술 사이사이에 끼어드는 문장은 '그'의 심리를 자유 직접 화법에 의해 서술한 것임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그'가 실제로 말한 내용이 아니라 '그' 역시 생각한 내용을 서술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 소설은 전반적으로 서술자가 마치 작중 인물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주인공의 심리를 기술하고 있으며, 주인공의 심리 역시 자연스럽게 기술되는 내용과 섞이고 있다. 이처럼 실제 글의 흐름에서 목소리의 중첩이라는 효과를 위하여 종결어미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3. 요약

이상으로 소설 시점에 따른 종결어미 출현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파악해보았다. 먼저 실제 자료에 나타난 종결어미의 목록과 그 빈도를 살펴보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초점화자의 변조에 의하여 인식양태에서는 시점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던 반면 종결어미에서는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참여자 시점의 경우 종결어미가 나타나는 빈도도 높았고 그 종류도 많았다. 그 반면 비참여자 시점은 종결어미의 빈도도 낮고 그 종류도 적었다. 이러한 차이는 소설 시점의 차이에 따른 서술자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결론

지금까지 소설 시점에 따른 한국어 문법 요소들이 어떻게 다른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빈도를 중심으로 한 계량적 연구 방법과 대상 텍스트의 문맥과 미시구조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소설의 시점은 크게 참여자 시점과 비참여자 시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은 소설의 첫 문장에서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영구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Genette(1972)에 따르면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인 초점화자는 소설에서 계속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러한 초점화자의 변경은 인식양태의 사용에 영향을 준다. 비참여자 시점의 경우 인식양태의 사용이 저지되어야 함에도 실제 자료를 보면 참여자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게 결과가 나타난다.

반면 종결어미의 경우 인식양태와는 달리 두 시점 사이의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초점화자가 자유롭게 변경 가능한 것과 달리, 종결어미의 경우 서술자와 연계된 것으로 서술자와 함께 고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Genette(1972)에서 말한 초점화라는 개념이 실제로 문법 범주의 빈도를 통해 증명되는 것이다. 인식양태는 초점화의 영향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초점화자의 변경에 의하여 비참여자 시점에서도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만, 초점화의 개념과 먼 종결어미는 시점이 고정됨에 따라 함께 고정되어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차이가 큰 것이다.

이 연구는 소설 역시 의사소통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시점과 문법 범주와의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시점과 관련된 문법 범주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인식양태와 종결어미 외에 다른 문법범주와의 상호작용은 살펴보지 못했다. 이것은 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놓는다.

또한 소설이나 기타 문학 작품을 작품 내 이야기와 독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체론적인 관점에서 다

양한 문법 요소가 소설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역시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아쉬운 점은 후일의 연구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강범모, 김흥규, 허명희(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언어학』 22, 한국언어학회, 3-57.

강소영(2002), 「[확연], [당연], [개연]의 양태표지 연구」, 『한국어학 』 16, 한국어학회, 217-236.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기종(2012), 『우리말 언어문체론 연구』, 한국문화사.

김동욱(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대한 연구」, 『국어학』 35, 국어학회, 171-197.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김천혜(1990), 『소설구조의 이론』, 文學과知性社.

김태엽(2001), 『국어 종결어미의 문법』, 국학자료원.

김흥수(1993), 「국어문체의 통사적 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31, 한국언어문학회, 83-101.

김흥수(2003), 「1인칭 소설의 화자와 시점에 대한 텍스트론적 해석」, 『語文學論叢』 2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75-95.

김흥수(2004), 「문학 텍스트와 문체론」, 『한국어학』 25, 한국어학회, 1-21

김흥수(2006), 「소설의 시점과 관련 문법 현상」, 『語文學論叢』 25,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53-66.

문병열(2007), 「한국어의 보문 구성 양태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갑수(1994), 『국어 문체론』, 대한교과서.

박재연(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 인식 양태를 중심으로」,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225.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박재연(2007), 「보조용언 구성 '-어지-'의 양태 의미에 대하여」, 『국어학』 50, 국어학회, 269-293.
박정은(2010), 「한국어 양태 표현 부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진호(2010), 「계량적 문체 시론」, 어문생활사연구소 제2차 국내학술회의 발표자료, 1-27.
박진호(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박진호(2011ㄴ),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 요소」, 『언어와 정보 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서태룡 외(1998),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석주연(2004), 「서술의 시점과 국어 문법 현상의 이해」, 『국어학』 43, 국어학회, 273-298.
송지연(1998), 「소설에서의 인칭의 문제」, 『佛語佛文學研究』 37, 한국불어불문학회, 221-237.
안주호(2004), 「'N+이다' 구성의 양태의미 연구」, 『담화와 인지』 11, 담화인지언어학회, 149-172.
안주호(2004), 「'-는 법이다'류의 양태표현 연구」, 『국어학』 44, 국어학회, 185-210.
안주호(2004), 「'-ㄹ 수 있-'구성의 특징과 문법화」, 『한국언어문학』 53, 한국언어문학회, 207-232.
이근용(2007), 「"같다"의 통사와 의미」, 『語文學論叢』 2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13-123.
이봉지(1993), 「제라르 쥬네트의 서사학과 촛점 이론」, 『佛語佛文學研究』 28, 한국불어불문학회, 191-205.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冠嶽語文硏究』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17-339.
이의종(2012), 「증거성과 정보 관할권의 상호작용」,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희(2004), 「국어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임동훈(2011), 「체계적인, 너무나 체계적인 : 박재연(2006)을 중심으로」, 『형태론』 13, 박이정, 107-123.
임성훈·정종록(1998), 「소설의 시점과 화자」, 『科學과 敎育』 6, 順天大學校 師範大學 附屬 科學敎育硏究所, 57-70.
장경현(2010), 『국어 종결부의 문체』, 역락.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16, 국어학회, 125-146.
전혜영(2002), 「공손의 화용론」, 이성범 외, 『화용론 연구』, 태학사, 89-126.
최정진(2012), 「한국어 선어말 어미의 시제성과 양태성 연구 : '-었-, -겠-, -더-, -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소설학회 편(1996), 『현대소설 視點의 시학』, 새문사.
허경행(2010), 『한국어 복합종결어미』, 박문사.
황인태(1992), 「언어학적 문체론과 그 분석의 실례」, 『언어연구』 8, 한국현대언어학회, 173-189.
Bal, M.(1985),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한용한 역(1999),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Booth, W.(1961), *The Rhetoric of F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rooks, C. & R. P. Warren(1943), *Understanding Fiction*, New York: F.S Crofte & Co..
Bybee, J., R. Perkins & W. Pagliuca(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riedmann, N.(1975), "Point of view," *in Form and Meaning in Fiction,* University of Georgia Press. pp.134-166[김병욱 편, 최상규 역(2007),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506-560.]
Genette, G.(1972), *Figures III*, Paris: Seuil. [권택영 역(1992), 서사담론, 교보문고]
Iser, W.(1978), "Strategies," *in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esthetic Response*, Balt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86-103 [김병욱 편, 최상규 역(2007), 현대소설의 이론, 예림기획, 583-609.]
Leech, G. N & M. Short(2007), *Style in fiction* : a linguistic introduction to English fictional prose 2nd ed, New York: Pearson Longman.
Lyons, J(1977), *Semantics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y, J(2001), *Pragmatics : an introduction. 2nd ed*, Malden: Blackwell Publishers.
Palmer, F. R. (1986), *Mood and Modal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rince, G.(1982), *Narratology: The form and Function of Narrative*, The Hague :Mouton Publishers. [최상규 역(1999),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陳志文(2012), 現代日本語の計量文体論, 東京: くろしお出版.

ABSTRACT

## A Study on Korean Grammar depending on a Point of View of a Novel

Kim, Jeong Ah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grammar element and point of view of a novel. The author selects a point of view of a novel, and a point of view of a novel influences a usage of 'epistemic modality' and 'sentence-final endings'. This paper us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o show this relationship.

Novel is a kind of the communication process. Generally, a typical communication process consists of a process to recognize the world and a process to tell readers. This communication process is divided 'recognition' and 'speech'. In a typical human communication process, 'recognition' and 'speech' are never separated each other. However, in novel, 'recognition' and 'speech' can split into two isolated parts. The subject of 'Recognition' is Focalizor and the subject of 'Speech' is the Narrator.

There is two point of view of a novel. One is a participant viewpoint which is narrator exist in a novel world as specific character in a novel. Another is non-participant viewpoint which is narrator exist outside a novel while narrator describes an event in a novel. In a participant viewpoint, narrator has his own eyes and speaks his own voice. But in a non-participant viewpoint, narrator isn't specific character and can't express his own opinions or emotions.

In chapter 3, features of epistemic modality which are related to recognition process are surveyed by appearance frequency. Epistemic modality is associated with an attitude of speaker about proposition. It was expected to emerge

epistemic modality in participant viewpoint more than non−participant viewpoint because participant viewpoint has narrator who can express his own opinions or emotions. But the frequency measurement results of the two viewpoints were similar. This result is due to the focalizor who perceives the novel world, not because narrator. There are 'Alterations' of focalizor in text, and epistemic modality can appear in novel of non−participant viewpoint. When focalizor is alterated, focalizor can observe a world as character inside a novel.

In chapter 4, features of sentence−final endings which are related to recognition process are inquired by appearance frequency. In this measuremen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viewpoints is evident. Sentence−final endings is a grammatical category that has indicating the type of sentence and the speech level. These category depend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Unlike focalizor, narrator is fixed the whole text. In participant viewpoint, there are various sentence−final endings for express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or and listener. But in non−participant viewpoint, narrator can't use various sentence−final endings because narrator isn't specified to a concrete character. If someone can't specify himself, he can't decide his position and speech level. For this reason, limited sentence−final endings occur in non−participant viewpoint.

Through these results, this study shows that a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point of view of novel are in connection each other.

Keywords: point of view, focalization, focalizator, sentence−final endings, epistemic modality, participant viewpoint, non−participant viewpoint, internal focalization, free direct discourse

Student Number: 2012−20004